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 유기견 돌보미 천사 **두명진**씨 — 가이사 헤어비스 **박나현 박진희** 자매 — 창원금속공업(주) **이정권** 이사
- 혁명나무진로커리어연구소 **윤신애** 소장 — **전재복** 시인 — 실버건강체조 **신정희** 강사
- 소상공인연합회 **조창신** 회장 — 콩뜰문화체험관 **이정수** 대표 — 한변해보자 문학살이팀 —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수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상상을 향해!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소비가 소득이되는 부업, 라이프스타일 기업 **교원**과 아름다운 인연을 만드세요.

월 10만원소비
브랜드체인지
+
추천 2인

단 두가지 조건으로
평생 함께 할 부업을 만나세요.



군산 박남혜 010-2396-5635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통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의 궁금증, 박남혜가 답해드립니다.

010-2396-5635

변호사 상담 : 자동차 대인 사고 보장 보험/산재/근재	손해 사정사, 행정사 경력 : 대인보상 상담 : 장기보험 보상 대인 자동차 보상	노무사 경력 : 손해보험 보상과 노무사 사무소 소장상담 : 산재/대인 자동차 보상	후유장해 상담 경력 : 손해보험 대인 센터장 손해보험 장기 센터장	GA지사 대표 박남혜 분석-해결-컨설팅 상담 : 생명/손해/자동차 배상책임/연금/변액/화재
--------------------------------------	-------------------------------------------------------	--------------------------------------------------------	--------------------------------------------	-------------------------------------------------------------

종합 보상 서비스를 한곳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 북
010-5265-5061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할수있습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장미칼럼

벽(wall)

우리에게 '벽'은 어떤 의미인가. 나를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가두려는 행위인가. 일본이 거대한 '수출 제한의 장벽'을 세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벽(w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합성어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월스트리트(wall street)이다. 미국 뉴욕 맨허튼의 금융가를 이르는 말이다. 뉴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626년 네덜란드인들이 맨해튼 섬을 원주민들로부터 24달러에 사들여 '뉴암스텔담'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후 1664년 제2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과 1674년 웨스터민스터 조약으로 영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땅 이름을 지을 때 새로운(new)이라는 뜻은 그냥 놔두고 암스텔담 대신 영국의 지방 이름 '요크'를 붙여서 오늘날의 '뉴욕(newyork)'이 탄생되었다.

당시의 24달러는 네덜란드 화폐로 60길더였는데 그 가치는 1,000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한 자료에는 "만약 4백 년 전의 그 24달러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 8%의 복리 수익을 얻었다면 오늘날엔 수치상 100조 달러(한화 약 11경 원)가 넘는 돈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400년 동안 연 8%의 이익을 낸다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 그렇더라도 34,490km²의 면적 (남한의 3분의 1) 위에 오늘 날 2,350만명이 살고 있는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대한 땅 덩어리를 그 값에 샀다는 이야기이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땅을 팔았지만 허망했다. 이주민들과 함께 살았지만 네덜란드인들과 분쟁도 일으켰다. 결국 네덜란드 인들이 원주민 습격을 막으려고 나무로 벽(wall)을 세웠는데, 차츰 높아져 높이가 4미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해졌다.

1699년 이 땅을 이어받은 영국군이 이를 철거했으며, 18세기 후반 뉴욕 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들이 들어섰다. 이 방벽을 따라 길게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이다.

스스로를 지키려던 '월(wall)'은 자칫했으면 자신을 가두는 철창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벽에서 벗어나 큰 길을 내고 자유롭게 소통했다. 그 길은 세계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wall street)'로 발전되었다.

일본이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등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벽을 치고 있지만 그건 '섬농의 몽니'에 다름 아니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들 스스로 철창에 갇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300여 년 전, 두렵고 힘들었지만 장벽을 허물고 세계를 향하여 큰 길을 닦았던 '월'가처럼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은 분명해졌다.

과정은 힘들 것이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리고 냄비 끓듯이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리하여 당당하게 장벽을 넘자.



편집장_채명룡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_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 (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곰창이최고예요 (수송점)_ 곰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 (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고은경	문성영	류은용	박준영	이수정
김지희	이성애	장은정	서정원	신승우
송미라	오주은	김기환	안현일	한주희



Vol. 101 | 2019.08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허종진	hjj1488@hanmail.net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신재순	speedal@jbedu.kr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은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_ 6

운동화에 대한 기억

운동화

권정생

까맣고 예쁜 운동화
몇 달째 두고두고 버르셨던
올 아버지 읍내 장까지 가서 사오신
“학교 갈 때만 신으라”

풋고추 두 되와
달걀 한 꾸러미
검정 고무신 두 켤레 값
어머님
“돌멩이 차지 마”

학교 갈 때만 운동화
집에 있을 땐 헌 고무신
운동화 차-
고무신 차-

고무신과 운동화가
번갈아 나를 태우고 다닌다.

집에 오면
마루 밑에 고무신이
기다려 있고

학교 갈 땐
운동화가 땀들 위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평생 시골예배당 종지기로 자신은 가난하게 살아가진 모든 것을 어린이를 위해 쓰도록 남기고 가신 권정생 선생님을 아시지요? 강아지똥, 몽실 언니를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학교갈 때만 신고, 해질세라 돌멩이 하나도 차지 못하도록 당부하시며, 그래도 자식에게 운동화 한 켤레 신고고 싶으셨던 부모님 마음이 잔뜩하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기만 하였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또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밥 먹고나서 똥지 말아라. 배 꺼진다.” 라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넘쳐나는 지금, 이런 시를 아이와 함께 읽으며 어떤 물건을 지니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삼베치마>(문학동네 2011)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창간 101호 특별대담
**송하진 지사로부터 듣는
 전북도정의 어제, 오늘, 내일**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사님, 반갑습니다. 일 많은 도정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민선 6기부터 따져 지사에 취임하신지 5년이 흘렀는데 지난 5년을 어떻게 자평하시겠습니까.

전북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상대적 소외와 낙후가 지속되면서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바꿔 가는 일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북에는 제조업 기반이나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뜰이나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악재도 겹쳤고요. 하지만 오히려 경제체질을 새롭게 하고 산업생태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삼락농정과 농식품농생명산업,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확정, 아시아농생명스마트밸리 조성,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 미래형 생태계 조성사업 예타 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확실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발전의 청사진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든다면?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를 받은 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확실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새만금의 가치가 단숨에 커졌고, 전북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가 국토부에서 열렸는데 국방부,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공사 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도는 내년에 추진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40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향후 도내 정치권과 협력하여 변동 없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육성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잊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전국 5번째, 도 단위에선 처음으로 2015년도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제품 실용화 기반이 부족한 전북이 농생명과 첨단소재 중심의 연구개발 허브로 성장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질개선을 강조하셨는데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1년에 이르기까지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이끌 신(新)산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연구개발 기능강화에도 집중할 생각입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래프 등 전북이 추진 중인 신산업의 성패는 연구개발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전북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에서부터 산업화·실용화 단계까지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기술사업화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나서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예타면제 기자회견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현장 도정현안 사업현장방문





김동연 부총리 군산 방문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 업무협약 체결식

폐쇄된 GM공장 인수와 전기차 기업의 새만금 진출을 계기로 노동계, 시민사회와 함께 전복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과 함께 선정된 사회적 경제타운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본격 육성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은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교통 트라이포트(Tri-port)구축을 추진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본격화해 전북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6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및 신시도-아미도 간 관광레저 용지 개발, 3기가와트(GW)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미래의 땅 새만금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꿔내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 중 많은 부분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일 텐데 그간의 성과는?

민선 6기 이후 799개 기업이 전북에 유치되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전체 투자 규모는 5조5천억 원을 상회하고 고용계획도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특히 도드람과 일진제강, 사조화인코리아, 경인양행, 농협케미칼, 나노스, 한솔케미칼 등 1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거나 약속한 알짜기업들이 유치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더불어 전북에 공장을 둔 하이텍과 삼양이노캠이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기반을 새만금에 마련하고,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으로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제공하게 된 덕분이지요. 실제로 네모이엔지와 레나인터내셔널 등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착공한데 이어 나노스와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엠피에스코리아 등 전기차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두드림(Do-Dream)전복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민선 7기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업무협약체결

올해에는 183개 사업에 7,93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9천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취임이후부터 '삼락농정'이라는 전북만의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이 궁금합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지향하는 전북의 삼락농정은 '최저가격보장제'와 '농민공익수당' 도입으로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농민 중심으로 바꾸는 선구자 역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최저가격보장제도는 현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전북 공익형 직불제를 광역 최초로 시행합니다. 농민공익수당 역시 삼락농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방법과 규모 등 주요사항을 결정했는데 이 정책의 도입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작년 전북의 농가소득은 증대율 46.1%를 기록하며 농가소득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농번기 공동급식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6차산업 인증사업자 육성,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도 꾸준히 추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농업인과 마을 청년 리더 육성, 고군산군도 명품어촌 조성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익산의 식품, 김제의 종자 및 농기계, 정읍과 순창의 미생물, 새만금의 첨단농업을 혁신도시의 농생명 R&D기관과 연계, 융합하는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조성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새만금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지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사업 국가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면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매립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는데다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도 하늘길이 확보되면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가치가 크게 솟고 있습니다. 과제는 역시 개발속도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신항만부두, 보조간선도로, 관광레저용지 등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조성 선도사업인 육상태양광 1구역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

현대엔지니어링, 남동발전 그리고 도내 6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한 육상태양광 시설 300MW중 90MW 규모의 선도 사업을 맡게 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이 상호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해 특수목적(SPC)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1년 말까지 설계, 인허가와 건설을 완료하고 20년간 태양광 시설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산업위aggi지역 현장방문



국립새만금수목원조성을위한업무협약





이들 컨소시엄은 주민참여율 10%, 주민수익률 7%, 지역기업 시공 참여율을 100%까지 보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태양광 기자재 납품권의 93%도 도내 기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새만금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과는 별도로 450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재생에너지사업의 4%를 차지합니다. 이를테면 펌프의 물을 솟구치게 하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작지만 첫 사업이니만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컨소시엄에서 다양한 이익 공유방안을 보장했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기업이 참여하게 될 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은 GM공장이 매각되고 전기차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경기 회복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가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요.

우리 도의 상생형 군산일자리사업은 두 가지 사업모델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MS컨소시엄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차협동화단지를 구축하는 새만금 전기차컨소시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노·사·민·정이 동의하는 사업모델 발굴과 상생협약체결을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 안정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신 컨소시엄과 새만금 컨소시엄 모두 투자협약을 체결해 투자계획과 고용창출계획은 구체화된 상태이며 현재는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이라 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군산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의제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가능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9월에 예정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컨소시엄과 명신 컨소시엄이 각각 내년 상반기와 내후년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군산일자리 공모와 선정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는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해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모두가 함께 노력했지만 가동이 재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주하고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기도 합니다. 군산조선소는 5천여 명의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이미 올해만 해도 세 차례 현대중공업 경영진을 만나 재가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대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미중 무역 분쟁,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조선 수요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변수가 있어 사측이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는 LNG선을 중심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재가동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측, 그리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할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전북 뉘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전북 뉘 찾기'를 통해 전북의 독자권역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대선국면과 맞물려 정치권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 등 정부 인사에 과거보다 많은 전북인이 임명됐고 공공기관 9개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인 7조 328억 원을 확보했고, 전북의 현안사업도 국정과제에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건립을 확정된 일은 전북 뉘 찾기가 거둔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농업시대 전복이 누렸던 위상을 회복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복 몹을 찾는 꾸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랜 낙후와 소외로 인한 절망감을 떨치고 자존감을 세우는 일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전복은 가아의 큰 줄기였고 백제와 후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이었고 호남 의병활동의 중심지였고요. 우리 역사에서 전복의 위상, 정체성을 확립해서 도민과 공유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에너지로, 도민의식으로 키워가는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라도 연구총서인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라감영 복원,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가야사 발굴 등 전복의 뿌리를 찾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불법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산업, 수송, 생활 등 7개 분야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응하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동오염원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 1,290억 원을 투입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농도시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마스크 지원, 도로 청소차 확대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도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예산 투입 추세를 감안할 때 도내 13만 5천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는 4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266억 원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폐차 기간을 6년까지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7월 초부터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도 제한합니다.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탁월한 식물인 케나프 재배 부지를 새만금 내에 100ha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중입니다. 케나프를 활용한 '새만금바이오매스연료' 개발을 위해 대학, 발전공기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케나프를 포함한 '초본계 바이오매스연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악취와 새만금호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김제 용지 축사는 익산 왕궁의 경우처럼 현업축사 매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안개분무시스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등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도 이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와 김제시, 전주시와 완주군이

서로 협력하고 재원을 부담해 관계지역 모두가 사업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악취 줄이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법 투기와 수출 중단으로 발생한 3만7천여 톤의 불법폐기물이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시·군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8기 지사로서 전반적인 공약 이행 상황을 자평하십니까?

약속드린 사업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개 분야 101개 공약사업 중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12개이고, 89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매니페스토가 주관하는 '전국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복의 대도약과 도민행복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늘 전북도정을 격려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낙후와 소외를 겪었던 전복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같은 굵직한 성과도 거뒀지만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과는 더욱 키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간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준비하고, 미래산업을 꾸준히 육성하면서 우리 전복은 그간의 낙후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가을 열매처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떠나는 전라북도도 아니라 찾아오는 전라북도, 새롭게 준비하는 전라북도도 될 수 있도록 도정의 수장으로서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8월로 창간 101호를 맞는 매거진군산 축하드리고 군산을 대표하는 월간지로서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군산의 유기견 돌보미 천사

두명진 씨

글 | 이진우(발행인)
jay0810@hanmail.net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사지말고_입양하세요

정말 무더운 날씨였다. 차안의 온도계는 35도를 가리켰고, 에어컨을 5단으로 커도 뜨거웠다. 시원한 사무실에서 멍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말로만 들었던 녀석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야에 위치한 그곳은 네비를 켜고 가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군산시내에서 약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니 가는 길에 그닥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초입에 놓여있는 [도그랜드]라는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곳은 강아지가 견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초 력서리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나온다. 수영장까지 있다.

그곳의 반대편으로, 방죽을 돌아 언덕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가보려는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다. 그야말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녀석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숨쉬기도 어려운 날씨에 두명진씨는 수십 마리의 녀석들과 넓은 언덕에서 놀고 있었다. 익산에서 열린 동물 관련 집회에 참석하고 바로 이곳으로 왔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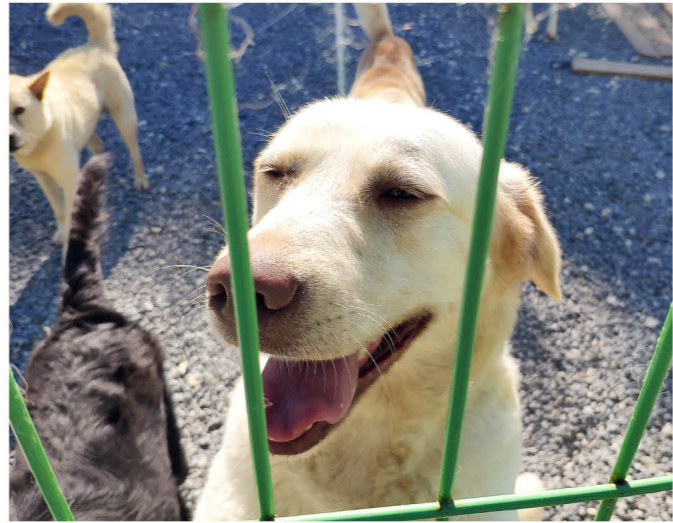
엄청나게 넓게 조성된 풀밭에 들어서자마자 녀석들이 킁킁 짓으며 달려든다. 마치 자기 집에 왜 왔냐는 듯. 어림잡아도 50마리는 되어 보였다. 순간 바짝 쭈었다. 반바지입고 갔는데 혹시 내 예쁜 다리를 물면 피가 철철 날 텐데. 그런데 몇 녀석이 다가오더니 냄새를 맡으며 친근감을 표현한다. 어라 요 녀석들, 내가 애견인임을 감지했구나.

환경은 한눈에 봐도 훌륭하다. 나도 이런 마당이 있으면 성공한 삶을 산다고 주변에 자랑할 텐데. 그런데 녀석들의 표정에도 딱 나와 있다. 자기를 버린 주인은 잊고 이곳 생활에 적응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 너희를 버린 그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니까.

이곳에는 약 5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살고 있다. 군산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건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군산과 익산의 유기견을 허술하게 관리하던 시설이 있었고 불법 안락사 문제로 폐쇄된 후, 30여 마리가 넘는 녀석들을 맡아줄 곳을 찾다가 애완견호텔을 운영하던 이곳에 위탁을 맡기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인데, 한 녀석 한 녀석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사람 한명 건사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곳의 녀석들은 한눈에 봐도 무척 깔끔해보여서 이 보호소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보였다. 사실 우리 집 진돗개 새미보다도 더 깨끗해 보이는 건 안 비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언덕 위편에는 보호소 건물이 있는데, 직원 몇분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자원봉사를 하러 온 학생들로 추정되는 몇몇은 똥도 치우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모습이 보였다. 필자의 사무실보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보며 왠지 허탈감과 감동의 물결이 동시에 밀려온다.



잘생긴 필자를 알아보는 녀석



난 터널이 좋아



너희들은 물을 마셔라 난 반신욕을 할테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의 언덕





필자의 사무실보다 깨끗해 보이는 시설

두명진씨가 본격적으로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한지는 2년 정도 되어간다. 그저 평범한 주부였던 그는 지금까지 매달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구조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끝이 안 보이는 이 일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게 한다. 그럼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 일은 마약 같은 일이라는 답을 한다.

마약 같은 일이 뭘까?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구조하고, 또 건강을 찾게 만들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입양 가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잊히고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그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없다. 그러나 끝이 없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는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 첫째, 한시적이라도 강아지공장(상업용 목적으로 개를 대량 사육하는 시설)을 중단시키고, 판매행위도 금지시키고, 둘째, 입양에 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되 강아지를 입양 받는 조건으로 반려생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꼽았다. 세 번째로는 개 식용 금지입법을 기대한다고. 현재 유기견의 국내 입양이 어려우니 해외입

양을 타진해보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도 꼬집었다.

개 식용에 관해서는 찬반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이글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더우니까. 다만 절대 개식용이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항생제 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는 것만 남긴다. 윤리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말이다.

오늘 이곳을 방문하며 느낀 가장 큰 것은 우리 군산시가 제법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같은 녀석들을 비정하게 내쳐버릴 인성을 가진 인간들과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까? 물론 녀석들은 주인의 경제력과 생김새와 인성 따위도 가리지 않고 주인을 섬기지만 말이다. 아니면 그런 개만도 못한 주인들은 잊고 이곳에서 친구들과 또 따뜻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까.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견생역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이곳 보호센터는 위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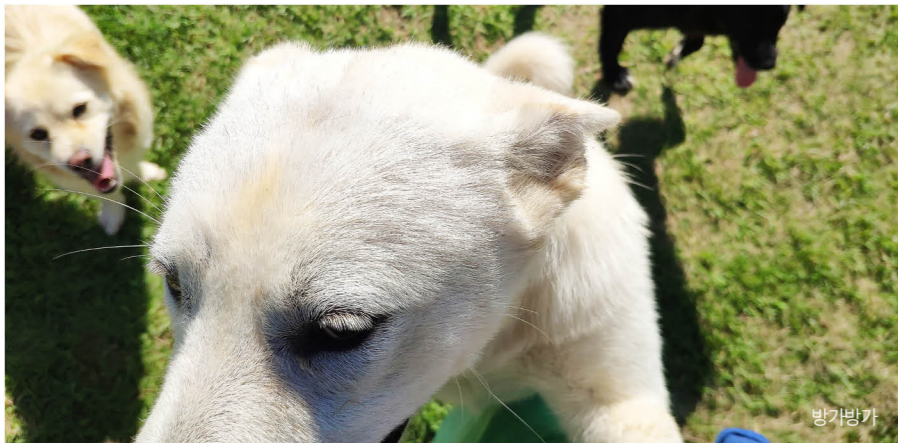
보호소 건물은 심지어 이쁘기까지 하다



자원봉사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방문한다



스페셜하게 더 귀여운 녀석들이라 특별대우를 받는건가



방가방가



총기사고로 하반신을 쓸수 없는 녀석



이녀석은 발이 불편하다. 녀석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녀석도 사색에 잠긴척하는 두명진씨



이곳의 시설은 한눈에 봐도 엄청 깨끗해 보인다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군산시 대야면 보덕안정길 108-20
T.063)451-2975

후원계좌 : 농협 351-1016-4439-03 (군산도그랜드영농조합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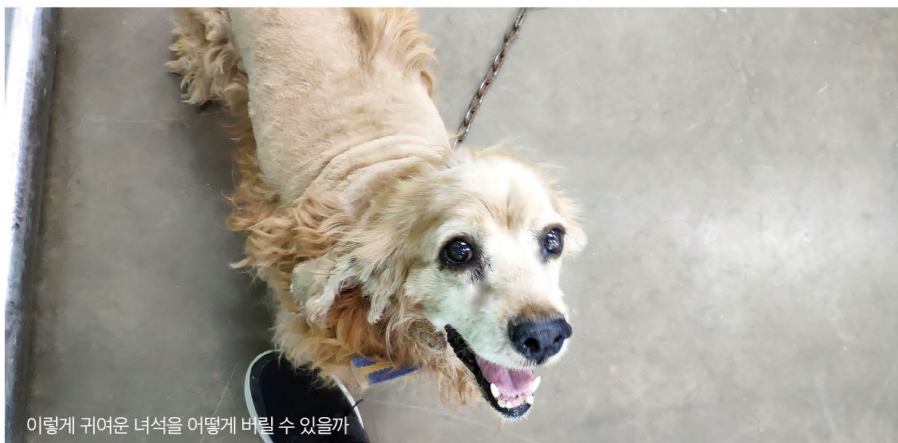
페이스북 공개그룹 :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 : gunsan_animalbaby
트위터 : @Gunsan_Dog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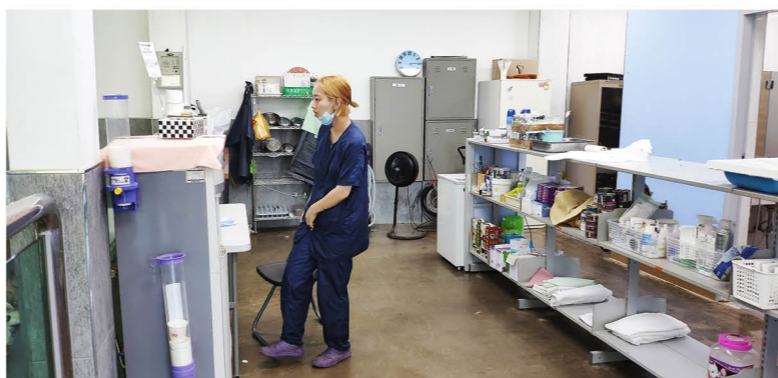
텐트안에는 에어컨시설까지 되어 있었다. 우리 안방보다 좋아보였다



더워서 오늘 하루가 엄청 힘들었다는 두명진씨. 과거 꽃미녀 모습은 어디로



이렇게 귀여운 녀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일본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라고?

문화로(수송동) 한 가운데의 '가이사' 헤어비스
박나현·진희 자매의 동고동락 10년

글 | 김혜진(편집위원) /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가이사 헤어비스의 두 자매

가이사(Kaisai). 그리스어로 로마의 가이사르를 가리키는 말로 황제라는 뜻이다. 즉,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다.

문화동에 위치한 '가이사 헤어비스'는 간판에서부터 시선을 확 끈다. 일본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이름의 '가이사'가 서흥중 사거리(모세의원)~수송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의 문화로(수송동)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니.

어떤 이들은 '가이사'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착각하기도 한다. 비슷한 어감의 말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을 것이다.

비슷한 어감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찾아보니 '게이샤'가 있다. 일본에서 요정이나 연회석에 나가 술을 따르고 전통적인 춤이나 노래로 흥을 돋우는 직업여성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헤어샵의 이름인 '가이사'와는 어감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말이다. 이 샵의 뜻은 앞서 설명한 로마의 황제이다. 미용실의 상호에 쉽게 매치하기 어려운 단어임엔 분명하다.

필자도 처음 이곳의 이름을 전해 들었을 때 의아하면서도 궁금증이 생겼다. 미용실에 가게 된다면 이름의 뜻부터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이사의 막내동생

작명소에서 지어 준 귀한 이름

'가이사' 뜻은 무엇일까. 그리스어와 한자 두 가지가 있다. 'Kaisai'는 로마의 황제를 뜻한다. 가이사의 조카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을 조직한 후부터 황제의 칭호가 되어 '황제'의 동의어로 쓰였다. 그의 이름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다.

가이사의 한자 뜻은 가(嘉: 아름다움, 훌륭함, 기쁨)이(灑: 이어짐)사(抄: 만질, 넓힐, 벌릴)이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기쁘게 추구한 바를 넓게 확장한다는 의미다.

2009년 매장을 오픈했을 때 나현씨의 시어머니(임순옥 생활개선회장)가 상호명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며 작명소를 찾아 직접 받아 온 이름이다.



시댁 엄마는 '가이사'라는 상호를 지어 와서 "손님들이 헤어샵에서 로마 황제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어쩌면 요즘 입에 올리기도 섭섭한 일본말 같기도 했던 간판의 뜻을 알고 나자 그동안의 오해(?) 비슷하게 결눈질 했던 게 괜히 부끄러워졌다.

편히 머리 하고 가는 공간

가이사 헤어비스는 2인 매장이다. 언니 박나현(39) 대표와 동생 박진희(37) 대표가 운영한다. 나현씨는 고등학교때부터 미용을 배웠고, 진희씨는 다른 일을 하다가 20대 초반 미용을 배우면서 언니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나현씨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다. 나현씨 왈, “광손(?)이지만 머리를 만지는 덴 나름의 재능을 보였다.”고 했다. 딸의 재능을 일찍 알아본 어머니가 미용의 길을 먼저 제안했다. 메이크업, 피부미용학원 등을 다니며 재밌게 공부했다. 나현씨는 빠른 속도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진희씨는 언니의 제안으로 미용의 길에 들어선 경우다. 평범한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 주는 미용은 배울수록 재미있었고, 적성에 맞았다.

3자매의 둘째이자 언니인 나현씨는 동생 진희씨에게 “해 봐서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니, 나중에 매장을 오픈할 때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의기투합한 게 지금에 이르렀다.

처음 시작할 땐 3자매가 피부와 미용샵을 함께 운영했지만 큰 언니가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헤어샵만 문을 열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자매는 처음에는 갈등도 잦았다. 자매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하는 것들,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갈등으로 번진 날들을 겪었다. 매장 관리하랴, 아이들 돌보랴, 살림 살피랴... 눈코 뜰 새 없었던 셋째의 스트레스가 아마도 가장 컸던 것 같다. 가끔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가도 며칠 안에 ‘백기 투항’하는 의리의 자매이다.

어쨌든 전문 직업여성이기애 아이가 생기면서 가슴 졸일 일도 많았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정과 시댁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매장을 키우면서 손님이 많을 땐 열두 시가 임박해서 퇴근한 적도 있었다. 자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걸이 화려하다고 속까지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우여곡절에도 자매가 함께할 수 있던 원동력은 ‘가족’이라는 동질감 때문이다. 물론 서운할 때도 있지만 힘이 되는 부분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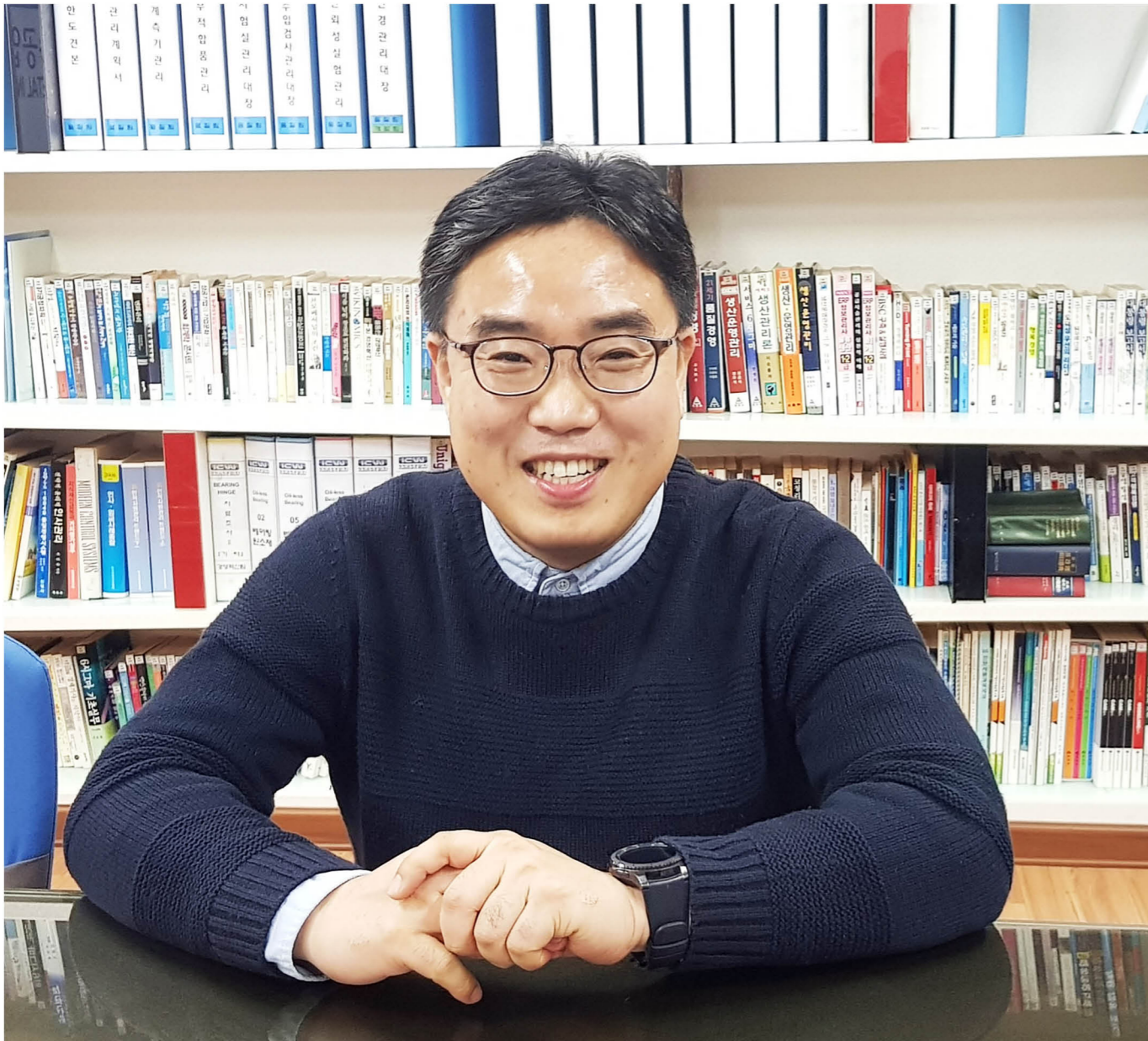
박나현 원장

나현씨와 진희씨는 매장의 손님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단골손님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진심경영’을 지켜나가고 있다. 믿고 찾아 온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일하는 이유라고 했다.

때론 빠치기도, 어느 땐 ‘날 좀 봐줘’하면서 양탈 부리기도 했던 3자매. 지금은 둘째와 셋째가 샵을 운영하지만 언젠가는 셋이 뭉칠 때가 있으리라.

10년간 한 자리에서 함께한 나현, 진희씨. 알고 보니 우아한 가게 이름처럼 ‘아름답고, 훌륭하고, 기쁜’ 그런 날들이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가이샤헤어비스(미용실)
군산시 문화로 67(수송동 442-12)
(063)466-0300



‘대체인증부품’ 사업으로 위기를 넘는다

국산차 제2호 자동차 인증품 출시
창원금속공업(주) 군산공장 이정권 이사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자동차 부품만을 전문 생산해 온 ‘창원금속공업(주)’이 그랜저G 휠더를 국산차 두 번째로 대체부품으로 인증 받고 6월 19일 본격적으로 출시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자동차부품협회에서 해당 제품을 심사하여 성능이나 품질이 OEM부품과 거의 유사함을 보증하는 게 ‘인증제도’이다.

부품의 품질과 성능은 동등하나 가격은 약 65%에 불과한 저비용 고효율 제품을 말한다. 차량 외부에 장착하여 공기 저항, 소음 등을 최소화 하려는 외장부품 38개와 방향지시 경고 등 등화부품 18개, 엔진오일, 에어필터 등 그능 소모성 부품 62개 등 모두 118개 부품이 대상이다.

‘창원금속공업(주)’는 지난 2월 국산차 최초로 현대 싼타페[TM모델의 전방 좌우 휠더 생산에 착수하여 약 1,500대 분량이 판매되었다. 이어 지난 3월 그랜저G 모델 휠더를 개발하여 이번에 국산차 두 번째로 출시하게 된 것이다.

최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인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를 추진하는 등 진취적인 걸음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에 대체인증 부품 집적화 단지 추진

이 회사는 군산에 자동차파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자리를 잡은 사업 경력 25년의 군산국가공단 왕고참 기업이다.

지난 1995년 법인 설립과 함께 지금의 공장을 짓고 대우자동차를 거쳐 GM군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해 온 1차 협력 업체이다. 지난 2012년부터 조금씩 물량이 줄어들었고, 이후 하향곡선이 급격하게 진행되다가 2018년 GM군산공장 가동 중단 여파를 함께 겪고 있다.

창원금속은 인천 부평의 (주)창원을 본사로 4개 법인이 주력이다. 요즘은 GM 의존도가 높았던 사업 영역을 현대 기아차 등으로 다변화 하는 한편 ‘대체 인증 부품’ 사업을 일컫어 전문 부품기업으로 재탄생을 도모하고 있다.

창원금속 이정권 이사는 “엔진은 변화해 가더라도 차체는 그대로 간다.”고 외장 전문 업체의 통련을 전망했다. 그 판단 아래 이른바 ‘순정부품’과 성능에서 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가격 만족도를 높이는 대체 인증 부품을 살려 나간다는 복안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미래형 자동차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부품업계는 조금 시각이 다르다. 전문 부품업계는 내연 기관의 몫이 다음 세대까지 가리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기벤처부 차관 회사 현장실습



글로벌자동차대체인증 부품 산업협의회

중기벤처부장관 방문사진

글로벌자동차대체인증 부품 산업협의회

창원금속공업(주)워크숍

중기벤처부장관방문

대체인증 부품과 관련해서는 창원금속공업이 맨 앞에서 이끌고 있다. 올해 3월 28일에 14개 회원사가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자동차대체인증 부품 사업협회를 만들었다. 창원금속이 주력이지만 자회사인 '탑피온'도 대체 인증 부품사업에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한다.

“부품 회사 하나만으로는 대체 인증 부품 사업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에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서 순정 부품과 견주어 성능에서 떨어지지 않는 전문 부품사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당위성과

시장성에 대해 어필하는 중이고요.”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서 단지 규모를 정해야 하는데, 협회 차원에서는 정부 재정으로 집적 단지 안에 레이저 가공장비나 3D 스캔 장비 등 일반 기업체들이 구비하기가 어려운 연구와 공용 기자재를 완비해주는 차원에서 300억 정도를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

‘순정부품’에 버금가는 대체인증 부품사업

“기존의 부품을 단순 카피하는 게 아니라 순정품 대비해서 동등한 성능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례

에 대해서만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통해서 보험 개발원의 인증을 받아서 인증실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자동차수리업체 등에 가서 보험 처리를 할 때 순정품 아니면 대체 인증품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묻고 소비자들이 대체인증부품을 선택하면 페이백을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고, 부품 업체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자동차부품협회와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품 개발이 여러 차종별로 이뤄지면 부품의 조달은 총판을 통해서 전국의

정비소에 공급된다. 지금은 일부 차종에 국한되어 있지만 집적 단지가 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차종에 부품이 공급되고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작년 12월 산타페에 대한 인증이 마무리 되었고, 출시도 되고 있어요. 또한 올 3월에 다른 차종에 대한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정부 지원도 따라오면 여러 차종에 대한 부품 개발이 이뤄지고, 이걸 소비자들이 찾게 되는 부품업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라고 기대합니다.”

이정권 이사의 말처럼 집적 단지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 주면 나머지는 기업들이 자체 생산 계획을 잡고 투자해 나갈 것이다.

정부 재정이 투자 된다는 건 사업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관망하던 기업들의 투자 촉진 등은 물론 확실한 기반 시설이 확보된 단지에 기업들이 부담 없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와 비슷한 절박한 기업들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재정이 이른 시일 안에 지원되길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현실에서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부품집적화 단지를 이끌어 가기는 어렵거든요. 정부가 앞장 서 주면 기업들의 투자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군산대학교와 ‘산학연’, 기업 성장에 도움

창원금속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계는 2006년부터였다. 이정권 이사가 주도하여 여러 세미나에도 참여하면서 회사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등에서 컨설팅을 자주 받았다.

연구 개발과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



“군산시가 발표하는 GM군산공장의 활용 방안을 보면 전기차가 주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현실에 자동차 부품집적단지가 미래형 먹거리가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요. 대체 부품은 수소차이든 전기차이든 신차 위주가 아니라, 구모델 외장 부품이 타겟이거든요. 별도로 양성해 나가야 할 산업군으로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대체 인증 부품은 외장 제품을 외주로 한다. 또 하나는 신차 위주가 아니라 기존의 차량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문성은 이미 확보되었고, 미흡했던 부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는 마케팅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부품전문기업도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연계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기업 현장에서의 산학연 협력 체제는 대세이다.

군산의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대체인증 부품 집적 단지의 개발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품질은 최고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완성도 높은 부품을 개발하려면 어려운 길을 넘어야 한다. 창원금속은 여러 가지로 갈리는 완성차 업계의 주문 사항에 대해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잘 대처하여 왔다.

다만 신규 개발 부품의 경우 업체에서 그걸 전부 계량화 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정권 이사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군산대학교에서 전문 인력 지원과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GM1차 협력업체로 잘 나가던 창원금속공업(주)가 이제 사업 다변화와 함께 대체부품이란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앞길이 활짝 열리길 응원한다.

과 협력이 산학연의 시작인데 부품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착실하게 기본부터 닦아온 셈이다. 회사에서 부품 개발 연구 인력 등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1차적으로 검증된 학생들을 보내주니 무척 도움이 되었다.

“중소기업에서 부품 개발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부분 산학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창원금속공업의 자회사인 ‘탑피온’에서 진행하였던 무급유 베어링의 경우가 이런 종류였지요. 지엠이 도입해준다고 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군산공장이 어려워지면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데 군산대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창원금속은 기업이 어렵더라도 ‘R&D’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이다. 군산대와의 산학협력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어렵지만 계속되어 왔다. 이런 바탕 위에 부품집적화 단지도 구상할 수 있었다.



희망나무진로커리어연구소 윤신애 소장의 “두근두근 내 인생”

글 | 오성렬(主幹)
po13275@naver.com



그녀를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씬한 미모에 조용한 성품으로 보이는 그녀가 '희망나무진로커리어연구소'라는 다소 긴 명칭의 단체 소장이었다가 수확학원 원장, 학생들 진로코치, 학습코치이기도 하고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와 전북본부 이사 및 강사를 비롯하여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회(가건모) 부회장을 맡고 있는가 하면 '군산시재향군인여성회' 부회장직도 가지고 있다니 그 의욕 넘치는 활동에 놀라기도 하고 그만큼 명함도 여러 개라서 그녀를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서는 딱히 어느 직함으로 불러야 될지 난감하기도 하다.

이토록 활동 분야가 다양한듯하지만 근원과 지향점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성장환경과 학습풍토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간파된다. 지금껏 대한민국의 교육은 인성이 설 자리가 없는 오로지 입시교육 하나로 모두가 죽기 살기 식 경쟁에 내몰림으로써 다 알다시피 청소년 자살률과 불행지수가 세계적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토록 줄 세우기식 성적 위주의 교육은 실패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처방은 백가쟁명이거나와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평등과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내팽겨친 자본의 논리만이 개인적 욕망과 결합해 교육의 병폐를 더 키우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성적이 아니라 성장 지향의 교육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우리의 아이들을 경쟁이 아닌 공존의 원리 속에서 건전한 심신을 갖춘 인격체로 길러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로서 일선 학교 등 교육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다. 윤신애 소장 역시 그 중 한명으로서 아이들은 공부만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도 질서와 배려, 협동 등 공동체 정신을 배우며 사회성을 습득하는 만큼 특히 유소년 시절엔 아이들답게 재밌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메마른 인성에 어둡지 않은 지식만 주입되어 저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 넉넉한 품성에 관계를 중시하는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했을 때 답은 명료해 보이지만 물론 선택은 자유다.



그녀는 얼마 전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가건모/회장 장은희)'과 함께 군산초등학교에서 전통 놀이수업을 가졌다. 이 행사는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 교수)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3, 4학년 12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 요청해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군산시 놀이터 활동가 노리아띠 선생님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어느덧 9회 차를 맞는 이날의 행사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놀이인 투호놀이,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플라잉디스크 윷놀이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놀이수업에 참여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천진난만 즐거운 모습이 역력했고 참관한 분들 역시 잠시 어렸을 적 추억에 빠져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할 만큼 아이들의 올바른 심신성장과 인성함양에 열정을 불태우는 윤 소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다.

■ 내 인생의 연결고리

두근두근 내 인생.

어릴 적 친구들과 무지개를 보았을 때 한번 잡아보겠다고 달려본 추억...

비록 잡을 수는 없었지만, 가슴과 두 팔을 한껏 폈을 때 가슴속 고동치며 들려오던 소리...

그 쾌감에 대한 기대와 설렘.

오랫동안 집, 학원, 교회만 알았던 생활 속에서 다시 한 번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고 싶었다. 인생에 기회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만큼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느 순간부터가 재미있게 나의 멋진 삶과 꿈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

- 사회 첫걸음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는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부친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였을까,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의문과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획일화된 입시교육!' 공부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 좀 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은 없는 걸까, 내 자식을 가르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게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작은 그룹으로 공부방을 시작하였다가 2000년 수송동에 왕수학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전

무조건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치자,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르친다. 재미있게 하자! 내가 아이들과 공부하는 방법은 이러했다. 선생님의 마인드와 열정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존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학자 왓슨의 행동주의 교육법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는 학습위주였다면 지금은 아이들의 눈과 표정을 보면서 '오늘 하루 학교에서 재미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가 되었고 나의 작은 변화가 점차 아이들의 밝은 표정, 행복한 얼굴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압적 훈육이나 다그침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눈마주침'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떠먹여주고 주입해주는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고 소통하다 보니까 오

히려 성적이 더 향상되고 각종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알게 모르게 입소문이 났던지 학원생이 더 눈에 따라 더 많은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이어졌다.

- 아이들 교육에 대한 목마름

아이들의 진로와 동기유발을 통한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교육학적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전문지식도 쌓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진로설계 공부와 함께 EBS진로진학상담사 1급,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인성지도사, 한국어교원2급, 심폐소생술전문가 자격증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 후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관내 19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코칭 강사로 출강 중이고 여러 초등학교에서 학습코치로 활동하는 가운데 사회활동으로는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와 전북본부 이사 및

강사,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회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이러한 교육 활동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것일까, 지난해부터 군산시제향군인여성회 부회장직을 맡아 향군회원의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의 적극적 참여와 매월 향군 임직원과 정기 월례회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조직 정예화와 친목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그녀는 사회단체 및 향군 행사참여를 통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에도 나서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 성원 행사지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모형항공기 행사 지원(공군제38전투비행전대 주관)'을 비롯하여 각종 안보결의대회 및 견학, 안보교육, 향군의 날 행사, 영호남 교류행사'등 부회장으로서는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향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 등이 이를 말해준다.



건 당연지사.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그녀를 찾는다. 때론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실 수는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교육관련 일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멀리 타 시,도에 까지 출장해야 될 때도 있어 혼자서 장시간 운전하는 일이 잦다. 운전의 무료함을 그녀는 음악으로 달랜다. 그녀의 USB에는 장르를 넘나드는 수천 곡의 음악이 저장되어 있어 혼자만의 공간인 차 안에서 그 음악을 들으며 운전할 때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란다.

어쩌다 서쪽 산하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놀, 달빛아래 부서지는 파도,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반짝이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신비하면서도 장엄한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벅찬 감동에 젖기도 한다는 그녀. 누군가의 아재개그에도 까르르 웃어주는 때 묻지 않은 듯한 그 순수한 감성은 아직 20대 소녀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밖에도 3·1절 기념행사, 현충일 추모행사, 6·25전쟁기념행사 및 학도병 전자사 추모제 행사, 8·15광복절 기념행사,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행사 등 범국가 사회단체 활동에 향군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향군 위상과 명예 고양에도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는 윤 소장은 추석 및 설날 전통시장 애용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및 지역 군부대 장병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환경정화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또한 현충일 군경합동묘지 정화활동 및 묘비 닦기 참여를 통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애도,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지원 및 벚꽃 철 먹거리장터 운영 등으로 시민공감대형성에 기여하는 등 여성부회장으로서 향군회원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 일체감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남다른 헌신을 쏟고 있다. 이에 군산시재향군인회에서는 그녀에 대한 포상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릇 활동분야가 폭넓어지다보면 그 중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홀해지는 게 보통의 경우이건만 그녀는 초심을 견지하려 애쓰며 매사에 적극적이다, 열정이 넘쳐서일까,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일까, 그러다보니 일이 많아지는



‘시 한 편에 실어 보내는 희망’ 전재복 시인

“수고했다”며 위로하는 글 작품에 담아
일상에서 얻은 한 줄기 깨달음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글쓰는 아우들과



시 낭송회

“사람과 사람 사이 수시로 와서 꽃히는 화살에 상처받고, 자신도 모르게 되쏘아 보낸 독화살에 피 흘리는 수많은 당신에게 주저주저 손 내밀어 길을 열어두는 용기가 또 하루를 응원합니다.”

전재복 시인의 글은 투박한 길에 놓인 작은 의자다. 그녀의 삶 속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오늘도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1992년 12월 시인으로 등단하고 나서 문학 활동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에는 <월간스토리문학>을 통해 수필등단을 거쳤고, 한국문협, 전북문협, 기쁜시문학, 군산문협, 나루문학 등 다양한 동인활동을 해왔어요. 지금은 시인협회 표현문학 교원문학 등 활동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글쓰기, 특히 시를 쓰는 일은 쓰면 쓸수록 어렵지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전재복 시인의 작품은 장르 불문 독자들이 읽고, 공감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을 지향한다.



고3 졸업직후 시화전(친구와 2인 시화전)

위기 속에서도 놓지 않은 꿈

전재복 시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국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출전해 상을 받았다. 군산여중에 다닐 때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전교 회장까지 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아버지는 고등학교 진학 대신 돈을 벌라고 했다. 어린 소녀는 울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애원했다. 평생 남편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던 어머니가 거리에 나왔어 콩나물 장사를 해서라도 딸을 고등학교에 보내겠다고 맞섰다.

설상가상으로 군산여고에 진학한 후 건강을 잃었다. 걸음을 못 땔 만큼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기에 부모님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했다. 매일 아위어갔던 그녀는 2학년 때 은사 백암기 선생님을 담임으로 만났다.

“주말에 선생님께서 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갔더니 사모님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더니 지금은 없어진 <십자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진찰을 하시더니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이제야 왔느냐고 하시며 도립병원(지금의 군산의료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소견서를 써 주셨어요.”

백암기 선생님은 2학기에 학생회장 출마를 권했다. 대학진학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제자의 잠재력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학생회장을 하면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여고를 졸업한 후, 군산교육대학에 진학하고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하면서 문학의 꿈을 이어갔다.

전재복 시인은 “그 시절 은사이신 백암기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힘든 시간 후 일궈낸 문인의 꿈

전재복 시인은 1972년부터 초등학교 교단에 섰다. 1977년 12월 중등교사인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 둘을 출산했다. 당시에는 출산휴가가 겨우 한 달이었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으나 현실은 여의치 않았다.

풍문초 재직시절 둘째를 낳고 진지하게 퇴직을 고민했다. 그때 교장선생님과 동료들이 극구 만류했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에서 아기를 봐 주었고, 동료들은 부기가 채 빠지지 않은 그녀를 위해 늙은 호박을 구해다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전재복 시인은 “모두가 소중한 은인들이다”고 회고했다.

30대 초반 중등 영어교사인 남편이 순창으로 발령 났을 때 그녀도 잠시 군산을 떠났다. 난생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곳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살다보니, 허약한 체질에 설상가상으로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3년간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나름 인정도 받았다.

3년 후 다시 군산으로 돌아왔고 1992년 12월 한국시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시 한 편에 실어 보내는 한 줄기 희망

“2008년 2월 말, 36년간의 교직생활을 매듭짓고 나서 비로소 여유롭게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가 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것을 보며 보람과 행복을 느꼈어요.”

전재복 시인은 시집 ‘그대에게 드리는 들꽃 한 다발’, ‘풍경소리’, ‘연잎에 비가 내리면’, ‘잃어버린 열쇠’와 산문집 ‘한 발짝 멀어지기 한 걸음 다가가기’를 출간했다.

일상에서 얻은 소소한 행복과 작은 깨달음을 글로 담아냈다. 그렇게 써 온 시들이 책으로 묶여지고 작품이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작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게 전재복 시인이 글을 쓰는 이유다.

그녀는 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시는 언제나 희망의 깃발이 꽂아져 있다.

해가 뜨고 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전재복 시인은 주어진 날들을 소중하며 일상에서 얻는 소소한 기쁨과 아픔을 글 속에 담고 있다.

애쓰지 말자
넘지 못할
벽으로 서 있는 너

굳게 틀어 쥔 자물통 앞에서
기억도 아득하게
은하 물에 빠뜨린 은빛 열쇠를
떠올리다니

풀려버린 시간의 열레는
덤불에 던져지고
얼기설기 영킨 몸에
가시는 웃자라는데

가당찮은 기대 때문에
또 무너져 아프지 말자
무겁게 가리앉아 녹슬어갈
잃어버린 열쇠

<네 번째 시집 -잃어버린 열쇠 ->



전재복
1979. 소년조선 동화 당선
1992. 12시 등단(한국시)
2005. 수필등단 (월간스토리문학)
한국문협, 전북문협, 전북시인협회, 전북불교문학,
표현문학, 기쁜시문학, 군산문협, 나루문학 회원

시집
<그대에게 드리는 들꽃 한 다발> <풍경소리>
<연잎에 비가 내리면> <잃어버린 열쇠>

산문집
<한 발짝 멀어지기 한 걸음 다가가기>

2008. 8. 31 옥조군정훈장(대통령)

군산평생학습관 글쓰기 지도강사로 활동 중
(2014. 3 ~ 2019 현재)



노환 예방, 기력 쑥쑥~ 실버 건강 체조

신정희 강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시내 모 아파트 경로당, 안에서는 일부 70대와 80, 90대에 이르기까지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음악에 맞춰 전신 체조를 하고 있다. 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일일이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체조를 지도하고 있는 신정희 강사. 일찍이 기공체조를 수련한 후 강사 경력만도 어느덧 13년이라는 그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소속 강사로서 일정에 따라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특히 노년층 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다.

공단에서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노년층에 대한 체조 보급 등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현실에서 실버 세대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무기력과 치매 전 증상, 우울증, 결림, 관절통 등등 각종 노환으로 소모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만 있다면 건강보험 예산 절감과 더불어 건강 증진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시행 이후 효과가 두드러지게 입증됨으로써 지속적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 강사가 기공체조를 시작한 것은 30대 초반. 결혼 후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우울증은 건강이상을 동반했다. 집을 떠나 천안의 친정에서 지내며 1년 이상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계속 되었지만 워낙 소심하고 자존심 강한데다가 예민한 성격이어서 선지 건강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친언니가 기공 수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줬다. 언니의 권유에 따라 시작한 기공체조는 뜻밖에도 적성에 맞았고 그래서인지 점차 건강도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수련에 정진했다.

그녀가 공단 소속 전문 강사로 활동한지도 어언 13년. 현재 10년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옥서면 관내 경로당 3곳, 미룡동 2곳, 산북동 1곳 등 6곳의 경로당을 전담, 월 60시간의 강사 임무를 수행 중이다. 사실 초기에는 일자리 때문에 시작한 이유가 컸고 도중에 슬럼프도 있었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심신 건강도 되찾고 더불어 성격도 원만하게 바뀌는 것을 체감하면서 스스로의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녀가 더욱 보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이유는 열심히 체조 수련을 한 어르신들로부터 저마다 건강 체조를 한 이후로 저리고 아팠던 곳이 많이 호전되고 우울증도 감소했





신정희 강사
HP. 010-8256-2249

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병원에 갈 일을 줄임으로써 가계 부담과 시간 소비를 막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공공 의료비 지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입증 된 것이어서 자신의 역할에 큰 자긍심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산북동 K아파트 경로당에서 체조 수업 도중 만난 권징대(80)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신정희 강사님으로부터 열심히 건강 체조를 지도 받은 이후로 다리 아픈 증세를 비롯하여 몸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져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라는 말을 들려주는가 하면 손명자(73)씨는 “병원 들락거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고 몸에 힘이 붙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서 주위에서 안색도 좋고 활기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위정월(72)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했는데 운동하면서부터 자세도 교정되고 후유증도 사라져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려주는데 그 외 많은 분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신 강사는 앞으로도 자신의 건강과 열정이 허락하는 한 실버세대의 건강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미력이나마 자신의 역할로 많은 노인 분들이 활력을 되찾고 동시에 건강보험 예산 지출 절감 효과도 거두는 게 큰 보람이자 소망이라며 밝은 웃음을 보여준다.



주방기구 사업 30년 조창신 대표

오직 한 길, 내 삶의 동반자 '소상공인'

군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조창신 회장
한국종합싱크 운영하며 사회봉사에 전념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회원들과 역량강화를 위해 찾은 경남 함양 시장



다문화 가족 초청 산행

“제 몸에는 소상공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30년 동안 싱크대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으니 회원들을 위한 건 제 숙명이자 인생이라고 봐지죠.”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나서왔던 체육인이자 봉사자 조창신 한국종합싱크 대표(55).

‘소모임의 성격을 넘어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여왔던 그가 소상공인 실무 책임자를 맡은 지 6년 만에 전국조직으로 성장한 전국소상공인연합회의 군산지부장으로 인준 받았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된 지 4년, 정부와 직접 대면하는 단체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경제 6단체로 칭하는 이 단체가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자생력을 길러온 군산의 소상공인협회가 연합회로 바뀌는 과정이니만큼 직능단체들을 묶어내면서 능력있는 단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길에 조창신과 회원들이 함께할 것이다.

약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자생 단체였던 공구상협회가 한국산업용재 군산지회로 확대되었을 때도 조창신은 그 자리를 지켰다. 지금도 그는 대의원으로 남았다.

이 단체가 지난 2013년 사단법인 형태의 소상공인협회로 확대 발전되면서 1대와 2대 때 김용배 회장이 조직을 맡아 고생했고, 3대를 이웅희 회장이 역임했다.

그 때부터 6년 동안 사무국장을 맡은 게 그였다. 그래서인지 조창신이라는 이름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성실함의 대명사이다. 그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군산상품 애용 캠페인
(좌로부터 김준수 사무국장, 조창신 회장, 이웅희 전 회장)



군산시 소상공인 대회



부산 자갈차 시장을 찾은 부부

1980년 제9회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땀 정도로 마라톤 유망주였던 조 대표, 고 1학년 때엔 금메달도 땀다. 허리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 고 3때 운동을 그만두고 군산대 체육과를 일반 학생으로 들어갔다.

그는 '시련은 삶을 단련시켜 준다.'는 말을 믿는다. 고생했던 그 추억이 오늘의 삶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어묵 판매점을 찾아 현황을 취척하는 조창신 회장

"저는 예비 합격자로 있다가 간신히 입학할 정도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이 악물고 공부했죠. 그 결과 학과에서는 꼭 1등을 했어요. 대학 2학년 때 학군단 시험을 보면서 세상의 벽을 느꼈고, 한 때 절망했거든요. 어렵게 이겨냈지요."

그랬다. 한 젊은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벽 앞에서 좌절했고, 하마터면 셋길로 빠질 뻔 했다. 운동도 잘하고 학과 1등이었기에 그는 당연히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떨어졌다. 쇼크였다. 핫김에 군대에 갔다.

"지금 생각하면 서울구치소에서의 군대 생활이 인내하는 걸 배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요."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그 또한 군대에 다녀와서 부쩍 성숙해졌다.

"군산대 체육과 동문회장 당시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만들어 전달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장학금을 더 조성해야 하는데, 조심스런 말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군산대출신 체육인들이 뭉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선수로 대성하지 못했지만 군산에서 체대를 나왔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

군산대경영행정대학원총동문회(군경총)와 군장대 CEO과정 총동문회와의 인연도 깊다. 그런 인연으로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군산시 산악연맹 사무차장을 했고, 그 인연으로 전북 산악연맹에서 전무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사무국장 시절의 조창신 회장

"나름대로 자영업을 하면서 동종 업계 사람들끼리 모임체를 만들었던 상인들에게 한 순간에 '조직이 통합되었으니 모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걱정도 있지만 조 회장은 '뜻이 좋으니 만큼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회 차원에서 미용, 음식 등등 직능단체별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상황을 보면 그 영향이 천천히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건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기다려야죠."라고 유연하게 말했다.

졸업을 앞 둔 1990년도 10월 한샘주방 직원으로 출발한 조창신, 그는 한 단체의 회장이기에 앞서 주방업과 함께 해 온 30년 외길 사업가이다. 1백여개 업체가 경쟁하는 군산에서 한국종합싱크는 중견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하여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시기에 각 직능 단체의 조직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명실공이 군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날이 머지않았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



소상공인 정책 홍보활동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산행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산행



소상공인 권익 보호 활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하여 제주도 한라산과 올레도 성인봉에 다녀왔다. 올해 10월엔 장애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히말라야에 간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지요. 저와 같은 서포터들은 모두 자기 비용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발달장애 아이들과 같이 만나푸르나를 오를 거니까 고생되겠지만 오래 간 직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겁니다.”

순둥이 조창신이 섬 처녀 아내를 만난 것 지극히 우연이다.

“어느 날, 친구가 학원 선생 아가씨를 소개해 준다는 거였어요. 복학생이었던 저는 책임감도 있고 해서 ‘아가씨를 소개받을 입장이 아니니 그냥 하숙집 사람들과 학원 선생님이 미팅하면 어떠냐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지요.”

세상사 모를 일이다. 하숙집 친구들과 아가씨들 네 명씩 미팅을 했는데, 정말로 우연히(사실, 우연인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친구가 소개해 준다고 했던 그 아가씨하고 짝이 된 거다.



안나푸르나 희망 원정대

“하숙집에 돌아갔는데, 주인아줌마에게 ‘한일학원 강사들하고 미팅을 했다.’니깐 아줌마가 ‘양현정’이라고 내 동생이 거기 선생’이라는 거였어요. 뭔가 내 뒤통수를 세게 치는 느낌이었지요. 제대로 코가 꺾인 셈이지요.”

하숙집 아줌마가 ‘내 동생’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머지 않아 그의 아내가 되었다. 1992년 결혼 후 아내는 보습학원을 차렸는데 지금도 나운동 금호타운 2차 앞상가 2층에서 ‘수 초등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내는 시집와서 고생만 징그럽게 한 셈이니 미안하지요. 큰 딸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간호대를 나왔는데 더 공부하고 있어요. 셋째가 늦둥이로 제일고에 다니는데 골치를 썩이기도 하지만 ‘머슴야니깐 잘 하리라고 믿어요.’

나를 위해 살기도 아까운 시간에 ‘나 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삶’을 선택한 조창신 회장. 그런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기에 군산의 소상공인연합회가 더욱 탄탄하게 성장하리라 기대한다.



사랑의 집짓기 봉사 활동



함양 5일장 4명물 손대국밥집 체험

시민이 직접 두부를 만들어보는 국내 유일 콩뜰문화체험관

이정수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이정수 윤미랑 부부



월명동 소재 두부요리전문점 콩뜰. 약 9년 전 개업하여 성업 중인 이정수 대표가 바로 옆 50여 평 건물에 두부 만들기 체험관을 개관한 것은 5년 전. 시민들이 질도 뛰어나고 건강에 좋은 두부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두부에 관한 상식 습득과 함께 체험자가 만든 두부는 본인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재미와 함께 실생활에서 두부 요리의 확산을 기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국내 유일 체험관

이러한 두부체험관은 전국적으로 군산의 콩뜰이 유일하며 두부 만들기 외에도 두부 피자, 두부과자, 두부도넛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성인을 포함해 단체 및 가족 단위의 체험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체험에 필요한 두부 기계와 두부 포장기, 콩물 끓이기용 대형 인덕션, 반죽기, 튀김기를 비롯하여 피자 제조용 전기오븐 등 일체의 설비를 완비했다.

두부의 효능 및 제조 과정

두부를 만드는 기본 과정은 일단 콩(대두)을 물에 불리고 나서 맷돌에 갈고, 여과기를 통해 콩물과 비지로 분리한 후 솥에 넣어 100도C로 끓인다. 끓인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콩물이 응고되어 순두부가 만들어 지는데 이것을 성형틀에 넣고 누름으로써 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 두부는 예부터 우리 식단에서 절대적 지위를 갖는 영양식품으로 각종 국이나 찌개류 조리에서 빠지지 않으며 생두부 그 자체만을 애용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그것은 식물성 식품이면서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뼈를 튼튼히



하고 신체의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거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B군, 비타민E 등의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어린이 및 학생들의 교육 체험 확산

따라서 두부는 특히 어려서부터 섭취하는 것이 신체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위해 좋다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체험관을 개관하면서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간 체험관을 이용한 인원만 해도 연 평균 800여명으로서 개관 이후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5천여 명에 달하며 현재도 몇몇 초, 중학교 단위로 수시 체험 행사가 진행 중인데 체험 참여에 따른 반응이 아주 좋고 다들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 대표는 향후 학교에 대한 출장 지도와 함께 콩물도 제공하고자 부대설비 운반용 탑차(塔車) 구매 계획까지 세웠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더욱 콘텐츠를 보완하여 교육체험학습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 할 생각이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콩들문화체험관으로서 군산의 자랑거리로 거듭 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 및 학교 단위의 체험 참여와 일반인들의 동참으로 콩의 영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응용한 다양한 식품의 보급 및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려준다.

참고로 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소정의 비용은 개인(4인 기준) 24,000원, 단체(4인 기준) 20,000원, 5세 이하(4인 기준) 16,000원이며, 콩을 불러야 되는 시간 관계상 예약은 하루 전에 받고 있다.

건강엔 두부가 최고예요!
콩들 코스요리 (공기밥포함)

1인 메뉴	콩들 코스요리 (공기밥포함)
전통어묵볶이기 12,000원	두부보쌈 (2인 35,000원, 3인 50,000원, 4인 65,000원)
소불고기볶이기 10,000원	두부보쌈 / 두부전골 / 소불고기버섯전골 (2인 25,000원, 3인 35,000원, 4인 45,000원)
해물순두부 8,000원	해물 특별메뉴
김치순두부 8,000원	산낙지전복 해물전골 (2인 40,000원, 3인 55,000원, 4인 70,000원)
순두부 7,000원	하절기 특별메뉴
해물순두부 7,000원	어묵과 직접 갈아먹은 콩국물 6,000원



콩들문화체험관
군산시 구영7길11(월명동)
T.063)445-2219
HP. 010-8337-2216

신중년, 자연과 예술에 빠지다

자연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품고살기)

한번해보자문학살이팀(대표 임순영)의 재도전

글 | 특별기고=임순영(영광여고 교사)



자연속에 신중년

한번해보자문학살이팀(대표 임순영)은 지난 7월 25일, 자연처럼 내어주는 행복한 신중년, 신중년 드림 톡 콘서트란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화예술교육 강의 및 토론회를 군산영광여고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자연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품고 살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9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주제이다.

품고 살기는 품격있는 고난으로 잘 살아보자는 뜻이다. 신중년(50세부터 64세까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5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한번해보자문학살이팀은 2018년도에 이어 연속 선정되었다.

자연과 예술로 나누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이 팀은 자연, 나무(숲)와 예술, 연극을 선택해 4개월째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달 25일(목)에는 자연 5차 프로그램 진행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년 우리들의 이야기, 신중년의 여유로운 삶, 온살이, 삶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라는 주제 강연과 팀원(10명)들 각자 이야기를 기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들은 이구 동성으로 나무, 숲을 통해 자연과 함께 인간을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 느낌처럼 감사와 긍정으로 행복함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숲에서 만나는 관계



한번해보자문학살이팀원

또한 독서, 시 문학 등을 행복의 숲과 함께함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신중년 삶이 더 자연친화적 삶이 되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동화되기를 바란다 한다.

이번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의는 8월부터 실시하는 예술 부문 연극을 위해 대본을 작성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연극에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신중년지원원은 이야기 하였다.

신중년으로 느끼는 삶의 고단함과 무게감을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풀어 낼 수 있도록 각자가 나의 이야기를 통해 대본을 만들고 무대라는 공간을 통해 가족, 주변인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연극 공연은 11월 초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중년 지원 프로그램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더 많은 신중년들이 문화 예술 분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고도 말하였다.

전문가 초청 강의에는 채명룡 시인(새군산신문 편집국장), 이희찬 소장(국제휴먼재활요가협회 회장), 김영철 연출가(연극, 영화 연출 및 제작)가 함께해 주었다.

한번해보자문학살이팀의 자연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품고 살기 일정

4월, [자연 1~2회 차] 숲에서 추억을 그리다.(장소: 월명산 일대) 숲에서 찾아보는 생애 주기, 나는 어디에
- 행복한 나(우리) 찾기

5월, [자연 3회 차] 내 삶의 충전, 숲속에서 만나는 나, 1박 2일, 전북환경연수원, 칠연 폭포 일대)
- 나와 우리는, 한 팀이다. 아름다운 신중년을 위한 인간 공동체
· 나는 누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내 삶의 충전, 숲속에서 만나는 향기(커피)
· 품격 있는 신중년, 숲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향
· 나만의 커피 만들기(강의, 체험 활동)
· 내 삶을 높이고 싶다.(행복), 자연(숲)과 하나 되는 나(인간)

6월, [자연 4회 차] 숲에서 추억을 그리다. 월명산 일대를 중심으로 숲에서 찾아보는 생애 주기(나는 어디에)
- 아, 그렇구나(이젠 알겠네, 조금): 그땐 몰랐지. 이젠 조금 알겠네
- 나무를 통해 느끼는 오감 만족 활동, 문학살이용 독서대 만들기 체험 활동

7월, [자연 5회 차] 자연처럼 내어주는 행복한 신중년
- 신중년 드림 톡 콘서트(나를 말한다. 나야, 나, 전문가 초청)
- 예술 프로그램 진행 회의(사이의 연극)

8월부터 10월까지 예술 부문으로 연극 활동. 11월 초 공연 예정



전문가 초청 강의



오감만족 나무 체험

누구를 위한 자사고인가?

글 |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함으로써 더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논란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사고가 대한민국의 교육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자사고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도외시키고 평가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중심에 놓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

자사고는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최소 3배 이상의 교육비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해도 돈 없는 학생들은 갈수 없는 학교가 자사고이다. 자사고 정책은 적지 않은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 입시를 위한 정보 독점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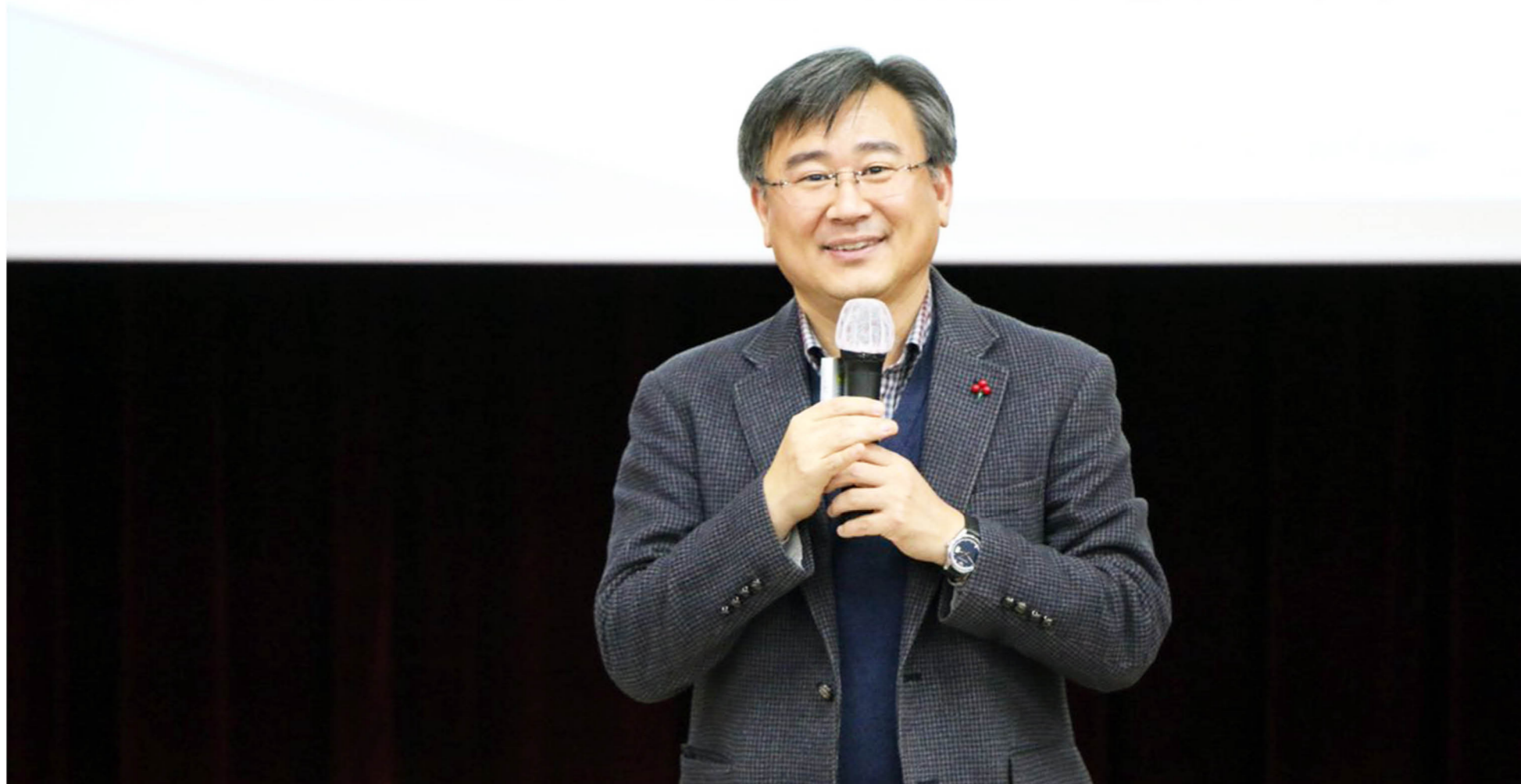
계층적 편향성에 기반을 둔 학교를 방치하면 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만다. 자사고는 소수의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학교 중의 하나이며,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학교제도로써 자사고는 실패한 교육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임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하는 정책은 옳지 못하다.

한편 자사고 지지자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화, 학교의 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수월성 교육 등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포장일 뿐 실제로는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특권교육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

자사고 특권교육의 핵심은 학생 우선선발권이었다. 자사고는 이러한 특권을 활용하여 그동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점하여 소위 일류대학 합격률을 높임으로써 입시명문고로 탈바꿈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고교 서열화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교육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서열에 따른 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입시명문고로서 특정학교 출신들의 학연을 통한 카르텔의 지속은 공정 사회를 위협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자사고 지지자들이 자사고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자사고는 학교 선택권보장, 사학의 건학이념에 대한 자율성의 제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설립취지와 목표와는 달리 사회양극화의 확대, 명문고(입시사관학교)의 부활,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그 악영향이 더욱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교육생태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의 평등, 지역의 균형발전, 인구절벽의 사회적 현상 해결 등 국가 사회적인 숙제가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재이다. 유초중고등학교의 보편교육 단계에서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출발선에 공정하게 서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 때문에 격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현재의 자사고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차별 없이 함께하는 군산’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마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센터의 중증정신질환관리팀에서는 등록된 정신질환자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관리, 증상관리, 일상생활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센터에서는 주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질환자들이 사회복귀훈련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업재활, 자원연계 등을 제공한다.

‘마음이 행복한 군산’ 정신건강증진사업
 군산시민의 우울감경험율은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5.0%에서 2018년 8.1%까지 증가했다. 또한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8년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45.6%가 정신건강서비스가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했다. 센터는 시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임산부, 중년여성,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을 사랑하는 군산’ 자살예방사업
 센터는 마음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위해 대야 센터(대야면 백마길 16)를 비롯 군산시보건소(수송동로 58, 2층) 내 마음건강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심리검사나 상담을 예약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365)를 제공한다. 또한 12개월 이내 실직자나 가족, 중

위소득 140%이내 가정에는 센터의 추천을 통해 정신건강전문과의 검사비나 치료비의 지원도 받아 볼 수 있다. 센터는 지역사회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게이트키퍼양성을 통해 생명사랑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군산’ 아동정신건강증진사업
 군산시보건소 1층에 위치한 마음건강클리닉 아동정신건강증진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피맘 부모코칭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및 발달향상을 위한 푸르미스쿨, ▲아동청소년의 빛나고(熙), 기쁘고(喜), 행복한(禧) 성장을 위한 정서문제 해결 희희희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김호선, 신세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듯이, 마음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며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0363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마음이 행복한 군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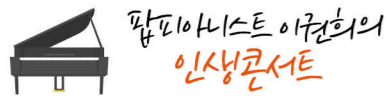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5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센터는 오는 5월(금) 14시 군산시청에서 개소 20주년 기념 정신건강워크숍을 개최예정이다. 20주년 행사에는 강북삼성병원 신영철 교수의 전지적 마음공감 시점이라는 주제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될만한 마음공감 지혜를 전달하고, 20년 간의 사업성과 보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1999년 7월, 지금부터 20년 전 전북에서 최초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그 목적을 갖는다.





<편집자 주>

매거진군산은 '한동안 뜸했었지', '그대 모습은 장마' 등 히트곡을 남긴 록밴드 '사랑과평화'에서 키보디스트로 활동하였던 이권희 피아니스트와의 인연으로 그의 음악 인생을 담은 '피아니스트 이권희의 인생콘서트'를 연재하기로 했다. 이권희씨는 고양시 풍동의 음악작업실에서 작업 중이며, 6장의 독집음반을 낸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군산을 찾아와 인디밴드를 육성하려고 하였으며, 박양기 시민예술총창과의 오랜 인연으로 군산의 뮤지션들과의 넓은 교분을 쌓아 왔다.

04. 황소와 동요

우리 동네에는 집집마다 소. 닭. 토끼, 강아지 등등의 가축들을 기르는 집들이 많았다. 우리집에도 소가 두 마리 정도는 늘 길러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축들을 잘 길러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겠지만 농사를 주로 짓던 그 때는 소들은 다른 가축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고 가축이라 보다는 거의 가축 같은 존재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침에 농사일로 논밭으로 나가실 때 우리들한테 학교에 갔다 돌아 오면 소들의 식사시간을 엄수하도록 몇 번이고 다짐받는 게 일쑤였다. 그래도 막상 학교 갔다 오면 노는데 정신이 팔려 집에 가방만 던져놓고 뛰쳐나가 실컷 놀다가 뒤늦게 "아차!" 하고 집에 와보면 소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앞에 놓여진 여물통을 핥고 또 핥아서 윤기가 반들반들 하게 되어있기도 했다.

뒤늦게 소죽을 퍼주면 소들은 나를 고마운 듯 야속한 듯 야릇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막내인 나는 동생이 없었기에 덩치 큰 소가 동생처럼 여겨졌기에 울적하거나 심심할땐 소와 대화를 하며 때론 위로를 받기도 하는 친구 같았으나 말 못하는 소 앞에는 내가 일방적인 대장이기도 했다..(ㅎㅎ)

날씨가 좋은 날엔 소를 몰고 들판에 풀밭으로 몰고 가서 자유롭게 풀을 맘껏 뜯어 먹도록 놓아주기도 했다. 소들은 맛있는 풀을 찾아 자유로이 배를 채우고 나면 돌아올 땐 배가 불러 인심이 넉넉해진 터라 언덕배기에서 등위에 살짝 올라타면 짜증도 안내고 꼬리를 한 바퀴 돌리면서 어슬렁어슬렁 마을 입구까지 나를 재밌게 태워주기도 했다. 그 황소등에타고 올 때의 기분은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자동차 탄 것 보다 더 재밌고 편안 했던 것 같다.

마을에 유난히 장난기가 많고 명물이었던 형이 있었다.

그 형은 소를 말로 착각할 정도로 소등에 앉으면 경마 선수처럼 돌변해서 마을 어서도 소를 타고 동네를 뛰며 돌아다니는 괴짜 형이었다. 어린 우리들 눈엔 대단한 담력을 가진 전쟁 영웅 같은, 이름난 장수처럼 대단하게 보였다. 지금 생각해도 발판이나 손잡이 등의 안전장치도 없었는데 어찌 그렇게 잘 타고 달렸는지 신기하다.

하루는 소를 들판에 풀을 뜯어 먹게 한 뒤 잠시 틈을 타서 산 속에 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산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에 허겁지겁 달려 가보니 소들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우리들은 순간 얼굴이 벌게지면서 "아.. 큰일났데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 인자..우짜노.."하고 주위를 한참 찾아 헤매다가 마을로 뛰어가서 동네 아저씨들한테 "소가 없어졌니더~~!" 하니 아저씨들께서 "집에 얼릉 가보거래이~"하고 깔깔 웃으셨다.

혈레벌떡 집으로 와보니 "이게 웬일인가?" 소가 느긋하게 여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된 거냐고 엄마한테 여쭙니 "소가 혼자서 정신없이 뛰어 들어오더라" 고 하셨다. 휴~~~~

아마 천둥치며 소나기가 쏟아지니 소들이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집을 찾아 뛰어온 것 같았다. 그 일을 겪은 후로 소가 대단히 영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름철이 되면 더위에 지쳐 소들도 뜨거운 쇠죽을 피하고 싱싱한 풀 위에 사료를 버물러 생식(우리가 먹는 일종의 샐러드스타일^^)으로 먹었기에 소 풀을 베러 산으로 들판으로 다니는 것이 일이자 놀이 문화였다. 풀을 베다가 배가 출출하면 집에서 뭇가 챙겨 가지 않더라도 산에는 온갖 종류의 간식들이 있었다. 그 중에 별미가 소나무의 줄기를 잘라서 곁에 거친 부분을 제거하고 입으로 껍질을 뜯어 씹으면 소나무에서 단물이 나와 씹으면 맛있어서 배를 채우기도 했다.



이것을 "송기"라 불렀다.

애들 중에는 유난히 단물이 많고 맛있는 송기를 잘 찾아내는 애도 있었고 둔한 애들은 늘 마른 쪽정이를 뜯어먹곤 했다. 그때는 단맛이 귀할 때라 "송기"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간식 이었고 동생들, 누나들. 줄려고 몇 개씩 챙겨 담아 오기도 했다.

어느 여름방학 때 일어났다.

마을 어귀 동산에서 전쟁놀이 하며 노는데 음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지없이 내 귀는 당나귀 귀처럼 쫓긋해 지고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근방에 가보니 벌써 많은 애들이 둘러 앉아 맛있는 과자도 먹어가면서 깔깔대며 즐겁게 모여 놀고 있었다. 앞에서 진행 하는 누나도 예뻐다. 우리처럼 시골에서 살지 않고 도시에서 온 여자가 분명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조금 후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흡사 귀신이 나올듯한 고음으로 생전 처음 들어 보는 노래를 불렀다.

창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노래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입도 크게 벌리고 심지어 웃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들을수록 신기하고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코를 찢찢 흘리며 얼굴도 꼬질꼬질한 시골 아이의 눈에 비친 도시에서 온 그 누나의 노래는 그림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천사의 목소리가 이렇지 않을까 싶기 까지 했다.

한참 후에야 그 노래 창법이 성악 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선교 단체에서 전도차 우리 동네를 들른 거였다.

아랫동네 아이들과 우리 동네 애들은 학교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동요와 율동을 배우기도 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라 쑥스러워 깔깔대기도 하며 재밌게 따라하고 놀다보니 형들이 여러 가지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 그때에 초코렛 이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다. 쓴맛이면서도 달콤한 맛이 있어 얼굴 표정을 찡그려 가면서도 맛있게 먹곤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혼자서 콧노래로 흥얼 흥얼하면서 낮에 배운 것을 몰래몰래 해 보고 내일은 꼭 예쁜 그 누나한테 칭찬을 받길, 꼭 내 머릴 쓰다듬어 주길 고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짧은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또 올까 포기가 되지 않았지만 그 후론 두 번 다시 그 누나나 형들을 볼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배운 동요가 아직 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시냇물은 졸졸 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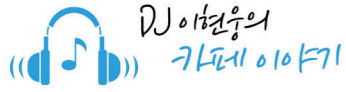
피꼬리는 피꿀 피꿀

오페라 아리아를 들을 때에도 그 예쁜 누나가 생각 나는데..

그 때 그 분들은 다니던 수많은 동네의 어디서나 흔하던 꼬마였던 나를 기억도 못하시겠지.....



피아니스트 이권희 삽화. 이영은(zzari)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롤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은'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슬픈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면서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쿨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관'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이놈의 카페, 할 짓이 아니다”

부서져버린 꿈의 거리 (Boulevard Of Broken Dreams)

인테리어 업자인 후배의 명함에는 '카페 공사 전문'이라는 문구가 굵고 짙은 글씨로 박혀있었다.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다.

“선배님, 어떤 인테리어를 원하세요?”

어떤 인테리어라니! 음악감상카페를 할 것이니 음악실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되 다른 인테리어는 전문가인 그에게 맡겼는데 오히려 내게 묻는 것이다. 출입문은 어찌할 것이며, 벽체는, 천장은,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어왔다.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바닥 공사의 자재로 데코타일을 선택했다. 보여준 카탈로그에서 적당한 색깔과 무늬의 타일을 선택했다. 시공 당일 출근해보니 공사가 한창 중이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닌 너무 밝은 타일이었다. 물어보니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림없다 했다. 확인 결과 카탈로그의 인

쇄가 어둡게 되었던 까닭이다.

나는 인쇄소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연히 인테리어 전문가가 내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어야 했다. 하루에만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타일이 코팅도 되지 않은 백색에 가까운 타일이라니! 설마 맨발로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그의 명함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빼고 차라리 명함 한복판에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크게 써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이 땅의 수많은 카페 주인들은 부동산과 인테리어, 광고 디자인, 커피 기기와 카페 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마치 카페 사업가로서의 자격 요건이 좋은 상가를 선택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하며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정작 오픈 이후 경영자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음악감상카페에서 오디오 장비는 중요하다. 사람들은 삼십 수년의 DJ 경력을 가진 내가 당연히 오디오 기기에 관해 남다른 지식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명백한 오해이다. 소리에 미쳐 집 팔아먹는 선배들을 보면서 애초부터 명품 스피커나 앰프 따위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것은 그 업계의 전문가가 우리 카페에 어울릴만한 장비를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 맞춰 추천해주면 될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인테리어를 했던 후배가 서울에 잘 아는 오디오 업자가 있으니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승낙했다.

개업 후 오디오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는 가혹했다. 소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카페용이 아닌 옥외 행사장에서나 사용될 오디오라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였다. 그들은 나에게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음악감상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오디오 장비에 대한 지식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삼십 수년의 DJ 경력에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듯했다. 어떤 이는 동정의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대개 술기운에 힘입어 그랬다. 어떤 손님은 아예 내놓고 이런 스피커로 무슨 음악감상카페를 하려고 하느냐며 힐난했다. 명품 오디오를 집에 갖춰놓은 어느 손님은 내게 일찌감치 카페를 때려치우라고 조용했다.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나는 분노했다. 오디오 업자에게 항의했다. 그는 오히려 나를 어이없어했다.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필시 둘 중 하나였다. 내 수준만큼이나 오디오에 관해 알지도 못하는 황당한 사업가이거나 잘 알면서도 먼 거리의 고객에게 골칫거리의 재고품을 떠넘긴 사기꾼이거나.

그날 나는 카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한숨을 내뿔으며 악을 썼다.

“이놈의 카페, 할 짓이 아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혀를 차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울지 모른다. 내게서 측은함마저 느껴지지도 모른다. 카페를 해서 안 될 사람이 카페를 시작한 것이므로 당연히 겪을 일이라고도 생각할 것이다. 동시에 당신 자신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질 것이다. 안 봐도 뻔하다. 어쩌면 더 이상 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당신이 카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책을 덮어버린다면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느 마케터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케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카페를 시작한 나를 고객으로 둔 그들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마케터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 대부분은 전문가가 갖춰야 할 문제 해결 능력을 비전문가이자 의뢰인인 내게 요구했다.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다. 알아서 해주면 된다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불신의 시대가 빚어낸 서글픈 일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못했듯이 나도 그들을 불신하게 되었다. 불신의 시대는 계속된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카페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오디오 장비로 음악을 들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삼켰다. 오랜 세월 염원했던 카페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깨져버린 것만 같았다.

“이놈의 카페, 할 짓이 아니다”라고 약다구니를 쓰며 Green Day의 <Boulevard Of Broken Dreams(부서져 버린 꿈의 거리)>를 듣고 또 들었다.

“외로운 거리를 걷지 내가 알던 그 유일한 길을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 홀로 텅 빈 이 거리를 걸어 부서져 버린 꿈의 거리, 잠들어 버린 도시 속을,

오직 나 혼자만이, 그렇게 걷고 있네 나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걷네“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기묘왜란, 우리는 이긴다.

1592년 전국시대를 평정한 왜적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여 7년 동안이나 우리의 금수강산을 유린했다. 300여 년이 지난 1910년 또다시 일제는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합방을 체결하고 35년 동안이나 우리의 국토는 물론 정신까지 말살을 했다. 이것도 모자라 2019년 7월, 일본의 경제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위안부 재협상과 일제강점기 징용 관련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이다. 이는 국제법을 무시한 일본의 감정대응에 지나지 않으며,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으로 선제 공격을 했다. 충성없는 신 기묘왜란(己卯倭亂)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이 이제는 '안 사고, 안 팔고, 안 가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 조치에 맞서 전 국민들이 대항하고 나선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물불처럼 들고 일어난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배로 일본을 무찔렀듯이 이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은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데 앞장선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가 반일감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정부의 마음을 헤아리듯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국민이 싸울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서라'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가급적 일본 정부와 마찰을 피하고 외교 실리를 찾으라는 뜻이다.

실제 국민들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제품은 쓰지 않고 꼭 필요로 했던 일본 전자제품도 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일본 정부와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이 같은 국민의 저항은 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의료계를 넘어 '일본 전범기업'의 명칭을 알리고 불매를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집회 성격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언론에서는 '유치한 놀음'이고,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을지 모른다.

예전에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가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다 잠잠해졌지만 이번엔 다르다. 우리 국민들 제대로 화가 났다. 큰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 더 큰 분노를 큰소리 내지 않고 삭이면서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수백 만 명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대통령도 끌어내린 국민이다. 그런 우리 국민을 제대로 화나게 한 것이다.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및 난징대학살 등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맞서 기묘왜란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길 것이다.



전군산시의원
수시탐포럼 사무처장
이복

역주행

구도심 변화가에 위치한 가계 앞 도로는 일방도로의 종점이다. 다시 말하면 역주행의 시작점인 셈이다.

하루에도 참 많은 차량들이 역주행을 하면서 서로가 얽혀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들을 연출한다.

그럴 때마다 일방도로이기에 가면 안 된다고 알려 주지만 운전자들의 반응은 대개가 「그래서 어찌라고...」의 반응을 보이며 그냥 들어간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차량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라도 나면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건만 많은 운전자들이 아랑곳 하지 않는다.

몰라서 가는 것 보다는 일방도로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말이다.

정신 병력으로, 만취 운전으로, 고령 운전으로, 초보 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이런 역주행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간다. 생각 없는 사람들의 철없는 행동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것이다.

전범국 일본이 반성조차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피해국에게 은전을 베풀 것처럼 하고 아직도 지배자 노릇을 하려는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또한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우리나라를 향해 역주행으로 달려오며 큰소리를 친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를 공격하고 비난한다. 적폐세력들이 자신의 죄를 묻는 사법행위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억울해 한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과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그 추한 입으로 국민을 들먹이며 상식이하의 행동을 자행하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갖지 않는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역주행을 자행하는 일부 정치인들, 흐르는 강을 막아놓고 맑은 물을 만들겠다는 사람들, 산을 까뭇개며 친환경을 외치는 사람들, 바다를 메워놓고 신천지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아 부디 역주행을 멈춰라.

역주행인 줄 알면서도 말리는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며 달려가는 사람들아, 지금 당장 역주행을 멈추지 않으면 서로가 불행해 진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남대진

엽기적인 사건

얼마 전 공중파 방송에서, 450여명의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치과가 방영되었습니다. 저도 전후사정을 제대로 파악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본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치 2개를 때워야 하는데, 4개를 때우는 경우에 우리는 과잉진료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은 간단한 총치 2개를 때우면 되는 상태에서 8개의 치아를 갈아내고 인공치관을 씌우는 정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며 살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돈을 더 벌기위해 안 해도 되는 진료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진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진료를 하는 순간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 사건의 경우는 단순한 과잉진료의 수준을 벗어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이 안타깝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그 치과의사에게 화가 나고 그 령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번 사건의 경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옷을 한 벌 사러 옷가게에 갔다가 감언이설에 현혹돼 10벌을 사게 됐다면, 환불하고 사태를 수습하면 됩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엉뚱하게 수리를 해줬다면, 수리한 거 다 떼어내고 다시 고치면 되겠지요. 그러나 치과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는 진료 결과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하려던 것을 생각이 바뀌었다고 발치한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넣을 수가 없고, 깎아서 씌운 금니가 맘에 안 든다면 금니를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깎아내기 전의 치아 상태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에 치과진료는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치료에 임할 때 '이번이 단 한번의 치료기회' 라고 생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포털에서 치과 관련검색을 하면 양심치과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OO지역 양심치과 어디가요?' 이런 질문과, 'OO지역 양심치과 추천합니다.' 이런 안내 등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치과를 불신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한 사회의 인식변화는 강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쉽게 변하지도 않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억지로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 해도 힘만 들고 바뀌는 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강물이 흐르는 걸 멈추지 않는 한, 강물의 흐름은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에 대한 불신이 누구려져서 치료 받는 사람이나, 치료하는 치과의사 모두가 편안한 마음과 웃는 얼굴로 치과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행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갓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준 3억원으로 강화

지난 7.1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6천명 정도였으나, 연간매출액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15만명 가량이 의무발행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농산물·수산물 등 판매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고령층이거나 홈택스등으로 세금신고등을 직접해보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점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면세재화 및 용역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달에 25백만원 정도 매출액인데 농수산물은 매출은 크지만 남는 금액이 얼마안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연간 3억원의 매출이더라도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고, 이러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대행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재래시장이나 고령의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일환세무사의 세무칼럼 마지막 인사의 말씀

매거진군산의 유료화 정책으로 인하여 저희 가장거래처와 관내 공인중개사분들께 매월 600부 가까이 무상으로 매거진군산을 발송해 드리던 서비스를 더 이상 진행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칼럼을 100회넘게 기재해주시고, 제작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비용으로 협조해주신 매거진군산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매거진군산과 세무칼럼을 사랑해주신 가장거래처 사장님과 공인중개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게 본업에 충실한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도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팀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전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무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은 이제 필수 가전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 갈 때마다 에어컨의 제거와 설치는 당연한 과정 중 하나가 됐습니다. 문제는 집이나 에어컨이 획일화된 게 아니다보니, 들어오는 사람과 나갈 사람 사이에 설치할 위치나 배관 구멍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일곤 합니다.

여름철에는 또 장마나 폭우가 오다보면 하수구나 정화조가 막혀서 넘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생상 문제도 크지만 비용 발생 문제도 큼니다. 임차인들은 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여름철에 살펴봐야 할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이사 왔을 당시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중고로 값을 지불하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설치 걱정 없이 그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A씨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본인들이 따로 에어컨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이사를 가면서 이전 설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새로 들어올 분들이 같은 자리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경우 A씨가 배관 구멍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A씨는 엄밀히 최초 에어컨 설치자도 아니고,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입니다. 최근 집주인(임대인)도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배관 구멍 문제를 얘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에어컨 시설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대상으로 할지, 별도의 특약조건으로 할지는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약정에 따릅니다. 에어컨은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함께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 임대인과 전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와 철거, 실외기 구멍 등에 대해서 정한 계약관계가 현재 집주인과 글쓴이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에어컨을 설치한 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질의자에게 그대로 승계했으므로, 원상복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에 관해 특별히 정한 것(특약내용에 기재나 언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택 상태에서 변형이 생긴 부분은 계약이 종료된 후 변형 전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에어컨과 같은 필수 가전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실외기 구멍을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외기 벽을 뚫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신규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할 때 기존 실외기 구멍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바뀐 집주인에게 이런 사정을 하루라도 일찍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내용으로는 B씨는 정화조 수리비 문제로 아랫집과 불편한 관계입니다. B씨는 2층의 연립주택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두 세대 살고, B씨는 2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1층 정화조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역류해 올라왔습니다.

집주인(임대인) 분은 사는 사람끼리 고치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해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검사해봐야 문제점을 알겠지만 입주한지 1년도 안됐고, 무엇보다 임차인들끼리 정화조 수리를 알아서 하는게 맞나요? 정화조 수리에 관한 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의 용법에 맞게 사용하게 하고 수익(이익)을 얻는 것,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하)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따라서 임차인이 보통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생활하다가 발생한 부동산 기타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형광등 같이 당연히 소모되는 물건을 교체하는 경우 등 소규모의 수선업무는 실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B씨와 같이 정화조가 역류하는 정도의 하자는 특별히 임차인들이 용법에 맞지 않는 사용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사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끼리 비용을 부담해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얼른 고쳐 달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히 행사해도 됩니다.

무덥고 지리한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짜증이 나는 이 계절에도 부디 독자 여러분의 댁내에 행운이 깃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양두구육 羊頭狗肉

양두구육(羊頭狗肉) 즉, 양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팔다. 겉은 훌륭하나 속은 변변치 못하거나, 그럴듯한 물건을 전시해 놓고 실제로는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혁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고 이 중 지역활력회복프로젝트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발표가 되었으며 군산도 상생형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정한 상생을 모색하는 일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의 일자리 논의를 한번 살펴보았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7000억원 투자를 통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 공장 설립 시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대략 1만~1만2000명,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으로 합의하고, 고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자동차 업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대신 각종 후생 복지 비용으로 소득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일자리로 '임금형 일자리'라고 한다.

'밀양형 일자리'는 창원시 진해구 마천산단과 부산, 김해 등에 있는 뿌리기업 28개 업체가 밀양 하남산단으로 입주하며 시설 투자하고, 지역일자리 늘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노·사·민·정이 협력해 스마트 공장 도입, 환경·근로여건 개선 등 입지, 환경, 노동 등의 다양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모두가 만족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좋은 일자

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투자형'이라고 한다.

'구미형 일자리'는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안에 있는 6만여 m² 부지에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6만 톤 규모의 미래세대 이차전지 양극재(양극재는 배터리의 4대 핵심원재료-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중 하나인데 배터리 재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 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성하는 '투자촉진형 일자리'라고 한다.

군산지역에서도 상생형일자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의 15개사의 전기차 컨소시엄 등으로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전기차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24일에는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생형 군산일자리 공론화 속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 상생, 투명경영 등의 내용을 토론했으며 '상생형일자리'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공론화를 거치는 시간이 되었다.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노·사·민·정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네 번째로 '군산형일자리'가 추진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아직 가깝지 않다. 노와 사의 입장, 시민의 입장, 자치단체의 지원 등 구체적인 서로의 목표점에 일치점을 찾아야하고 그 일치점이 대 내외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신뢰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단비가 되어야 하니 말이다. 어찌되었든 침체된 경기를 적극 부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상생형 일자리 논의가 양두구육(羊頭狗肉)처럼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공허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반기 관람객 30% 증가

- 연 100만명 관람으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전반기 방문객 집계결과 전년대비 30% 증가세를 보여 군산지역의 대표 관광지로서 어려운 지역상황속에서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해내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관람객 숫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최근 2~3년간 이어온 경기 불황 등의 이미지가 SNS 등에서 사라지며 관람객이 다시 찾기 시작하였고, 근대역사박물관에 가면 볼거리가 넘친다는 마케팅 활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스탬프 투어 및 다양한 체험활동이 어린이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 금강권 전시장 재생으로 비상을 꿈꾸는 박물관

올해초 박물관은 금강권 전시관인 3.1운동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를 편입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금강권 관광의 동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강권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전시관들을 활용하여 박물관과 연계를 통해 향후 군산의 대표 관광권역으로 재도약이 기대된다.

박물관 및 금강권 통합권 운영방안은 박물관 벨트화 지역을 출발하여 경암동 철길마을, 3.1운동 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금강 철새조망대까지의 순순환 관람을 하는 방식으로 이동 시간상 도보로 2시간, 자전거로 30분, 차량으로 15분이 소요되며 관람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반나절을 소요하게 됨으로서 원도심 근대문화와 연계하면 1박2일 체류형 관광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금년에 들어서 증가되고 있는 박물관의 입장객 100만명중 20~30%인 20~30만명을 금강권 전시장으로 유도하게 되어 군산 관광의 축을 동부권으로 확산시킴으로 체류형 관광의 기본틀을 구축하는 회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체험중심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

금강권 통합운영을 위하여 콘텐츠의 보완을 통해 역사성을 가지고 흥미롭고 추억이 될 수 있는 50여개의 체험을 새롭게 갖추고, 스토리텔링 체험후 선물을 가지고 다른 전시장으로 이동 최종 미션을 완성하게 하는 스탬프투어를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새조망대에서는 어린이와 방문객들의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사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5,000원 이상의 금강권 통합입장권을 구입한 방문객에게는 철새조망대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방문객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해 지역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근대역사박물관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굵직굵직한 이력을 남기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별함은 바로 "시민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유물을 포함한 2만 7천여점의 방대한 유물은 바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라는 역동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1년에 20여회의 전시와 300여회의 문화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복합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자원봉사자 100여명이 근대해설사, 인형극, 민속놀이 등을 함께 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만드는 박물관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 다양한 테마의 전시와 야간운영을 통한 전시관람문화 조성

근대역사박물관은 불꺼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소와 군산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박물관 벨트화 지역내에서는 야간개장(18:00~21:00, 무료관람)을 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전국최고의 근대문화유산을 지닌 우리시의 강점을 살려 근대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관광산업화에 노력함으로써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민예술촌

야외갤러리 아트테리토리에서 '하루 또 하루' 2인

군산시민예술촌(박양기 총장)은 야외갤러리인 아트테리토리에서 '하루 또 하루'라는 주제로 최춘기·홍성미 작가의 2인전이 열린다.

최춘기 작가는 완주 소양에서 2009년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소일거리로 그림을 그려오다 지금은 작가로의 삶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그림을 시작한 초기에는 소나무, 매화, 목련 등 한 가지 주제를 그렸으나 점차 대상을 넓혀 새와 사슴, 호랑이 등의 동물이 그림에 그려지고 현재는 작은 폭포가 있고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러진 이상향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홍성미 작가는 버려지는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의 파괴가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 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10여년 전부터 버려지는 재료들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나무판, 옷가지, 종이조각 등에 아크릴 물감과 유통기한이 지난 인스턴트커피나 콩을 삶은 물 등으로 그림을 그린다.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눈 밖으로 벗어나 멸종 또는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 인간에 의해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인해 아파하는 동물들, 차별 없는 모습인 어린 아이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다.

이번 '하루 또 하루' 2인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간 진행되는 전시로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군산시민예술촌 야외갤러리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군산시민예술촌의 아트테리토리는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 사이의 접근성을 핵심 키워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길거리 전시장으로 정통적 예술 방식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크리에이티브 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아트테리토리는 '형과 색'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였다.



최춘기



홍성미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Peace Makers : 선을 지우는 사람들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파주 DMZ 일대, 남양주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제 4회 달그락 상상캠프가 열렸다. 이번 달그락 상상캠프의 주제는 "Peace makers : 선을 지우는 사람들"이다.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평화'를 주제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평화를 알리기 위해 캠프를 떠났다.

캠프가 진행되기 약 2달 전부터 청소년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TF는 '평화'라는 캠프 주제를 가지고 토의활동을 진행했다. 캠프 기획자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자유, 통일, 약속, 존중, 사람으로 청소년이 생각하는 평화가 도출되었다. 청소년들이 5가지로 평화를 정의해보았듯 사람마다 평화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TF 청소년들은 평화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전지구적 평화, 한반도 평화, 지역사회 평화, 내면의 평화를 캠프에 담고자 했다.

캠프의 첫 시작은 함께 캠프 규칙을 세우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캠프를 위해서 지켜야할 규칙을 세우며 분위기를 형성해갔고 공동체 게임을 통해서 각 조의 청소년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평화에 대한 언어산책을 진행하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었던 평화에 대한 단어, 격언을 벽에 붙여두고 공간을 산책하며 그것들을 읽었다. 마음에 드는 단어나 격언을 선택하여 조 안에서 생각을 나누며 전 지구적인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다음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센터장님의 강의를 이어졌다.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평화권에 대한 이야기와 개인의 서사에 집중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평소 알지 못했던 평화, 인권 등에 관한 이야기가 진정

성 있게 와닿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마을에서 무슨일이 있었을까?' 라는 프로그램은 '한반도'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을'의 평화를 해쳤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성주 사드배치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제주 4.3 사건, 구이역 스크린도어,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까지 8가지 마을의 평화를 해쳤던 사건을 각 조별로 알아보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과 마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성주 사드 사건을 맡은 조는 사드를 그려 넣으며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표현해내며 큰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한 마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다.

캠프 둘째날엔 파주 DMZ로 평화체험을 떠났다.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곳에서 청소년들의 평화를 담은 브이로그를 제작했다. 총탄이 박힌 기차와 이산가족 분들의 아픔이 담긴 곳에서 평화를 생각해보고,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도라산역과 북한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서 자신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은 더 가까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인데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 지구적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는 것과 함께 내면의 평화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달그락 청소년 평화 콘서트는 토크와 뮤직으로 나뉘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 들어 보았다.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발표한 두진휘 청소년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내면의 평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켜 나갔으면 해요."라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했다. 캠프를 통해 살펴보고 느낄 수 있었



던 전지구적 평화, 한반도 평화, 내면의 평화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달그락 청소년들이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문으로 기록했다. 이 평화실천문은 달그락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해서 느꼈던 바와 다짐을 이후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달그락 상상캠프 TF 추진위원장이자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회장인 김태빈 청소년은 현재 우리사회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평화를 만들어갈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년 진행되는 달그락 상상캠프는 단순히 재미만 찾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향후 캠프를 통한 사회의 움직임을 가져오려는 노력이 계속 될 것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전국 최초 콘서트 중심 페스티벌 열린다

- 차림문화원-군산시, MOU 체결
- 9월 월명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진행
- 시민참여형 이벤트로 문화관광사업 육성

군산시와 차림문화원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콘서트 중심의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차림문화원(대표 이미숙)은 7월 25일 군산시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2019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2019 Gunsan Concert Festival)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9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은 군산시와 차림문화원이 주최하며, 공연기획사(주)원클릭이 주관사로 참여한다. 2019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슈퍼트롯 콘서트, K-POP 콘서트, Hello, Modern 밴드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로 구성되어 있다. '슈퍼트롯 콘서트'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축구장에서 진행되며 하춘화, 태진아, 송대관, 장윤정, 박현빈, 신유, 진성, 금잔디 등 총 30명의 성인가요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K-POP 콘서트'는 27일과 28일 저녁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진행되며, 아이돌 그룹 위너, 아스트로, 러블리즈, 위키미키 등 총 16팀이 참여한다. 2019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Hello, Modern 밴드 콘서트"는 29일 오후 6시부터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진행되며, 육종완 밴드, 안녕바다, 레이저본 등 개성이 뚜렷한 밴드들과 군산지역 밴드, 호원대학교 학생들이 무대에 오른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이 군산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군산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숙 차림문화원 대표는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이 군산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문화예술 분야에 꿈을 가진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2019년도 상반기 1만5천개 일자리 창출

- 더 좋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 선순환 자립경제 일자리도시 군산 실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2019년 일자리 창출 목표인 1만 5천개 일자리를 전반기에 초과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신규일자리 창출인원목표를 15,053명으로 정하고

전부서가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진해 왔다. 시는 2019년도 일자리창출 5대 전략으로 청년 일자리, 신산업 일자리, 시민밀착 일자리, 창업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를 수립했으며, 전략별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해 올해 목표인원 대비 636명을 더한 15,689(104.2%)명의 신규일자리를 초과 창출했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수당 등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 발굴 제공했으며,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등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한 322명 청년일자리 창출했다. 신산업 일자리는 새만금산단 중심 특화된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기업 유치로 통해 2,846명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했으며, 신산업에 대비한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업생태계 재편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밀착 일자리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체험형 일자리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강사와 매니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림분야 일자리, 재활용 폐기물 선별작업자, 아동복지교사, 어린이 안전 지키미 등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복지과 연계한 일자리로 3,742명을 창출했다. 창업 일자리는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센터와 예술콘텐츠스테이션 등 창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짬뽕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2030청년농업인 정착 사업, 여성창업 지원사업 등 자립형 창업촉진으로 창업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했다. 맞춤형 일자리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로 서민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1,494명, 노인일자리 4,970명, 여성일자리 1,215명, 자활근로와 장애인 일자리 등 총 8,275명 계층별 특화 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며,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으로 직접적인 공공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산의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산업에 관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올해 목표인원을 달성했지만,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으로 양적인 일자리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지속 가능한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보건소,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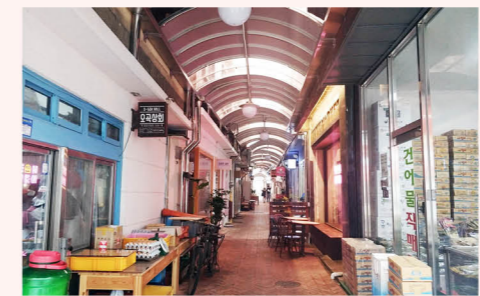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또는 대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히 회복되나,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종, 뇌염 등 중추신경계 합병증과 심근염, 심경원성 폐부종,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어 발열,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수족구병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전과 후에는 손씻기, 장갑감과 집기의 청결한 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관내 키즈카페, 문화센터, 수영장, 어린이집, 유치원 등 300개소에 수족구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소독 등 청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영화타운, 누구나 찾는 시장 꿈꾸다

- 신규 점포 5곳 입점, 시설 리모델링
-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로 새로운 변화 모색

영화시장이 '영화타운'이라는 이름을 걸고 남녀노소 모두 찾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쇠락한 시장의 모습을 벗고,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서다. 지난 7월 26일 찾은 영화시장은 '영화타운'이라는 브랜드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음식점 4곳, 공방 1곳이 입점해 있었다. 신규 점포는 디저트카페와 미국식 가맥집, 스페인 식당, 군산 시계 빵, 바느질공방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하수관거 정비, 보도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등 시설도 리모델링했다. 장마철이라 오가는 인파가 많진 않았지만 새로 생긴 식당을 찾기 위해 영화시장을 방문하는 이들도 종종 보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군산시 영화시장 활성화사업은 영화시장을 '누구나 찾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2017년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가 사업 용역을 맡고, 직접 일본 리노베이션(Renovation) 스쿨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공-폐가를 활용한 마을재생 전략으로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제공받아 임차인 모집부터 장인,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개발되는 민간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의 단기 집중형 교육을 말한다. 사업 예산은 10억여 원이 투



입되었다. '액티브 로컬 캠프_군산'을 통해 신규점포 창업주들을 선정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년 간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청년 창업주들을 연계해 창업 계획을 도왔다.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젊은 상인들은 식당에 필요한 재료들을 시장 안에서 구매했고, 기존 상인들은 식당에 수시로 재료를 공급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 신규 점포 상인은 "재료를 사기 위해 멀리 나가지 않아 편하고, 같은 시장 주민들끼리 친해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아체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가까운 식당에서 재료를 수시로 사 가니 매출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영화타운의 지속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근대문화도시를 찾는 관광객을 겨냥한 차별화된 시장의 전략이 필요하다. 영화타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권능 (쥬지방 대표)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사업이란 상업시설을 하나의 마을로 간주하고 전문 기관이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개념이다"며 "어려움도 많겠지만 청년 창업주들과 기존 상인들 간 협업체를 구성해 효율적인 시장 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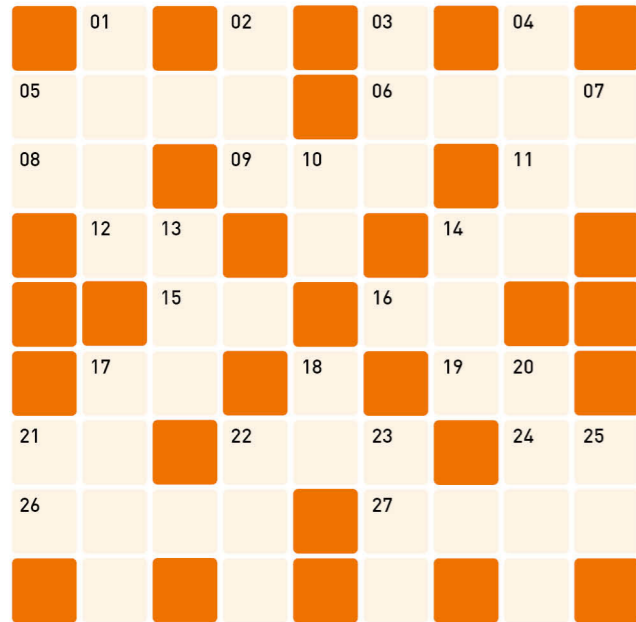
군산시, 다양한 폭염 예방 대책 추진

군산시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폭염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및 전통시장 36개소에 열음을 비치했으며, 지역 내 승강장 10개소 정도에 에어커튼을 설치 준비 중이다. 또한 거리 곳곳에 인공 안개비인 쿨링포그와 보행로 미스트폴을 설치해 노출에서 인체에 무해한 깨끗한 수돗물이 미세물방울로 분사돼 주위의 열을 빼앗아 2~3°C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농어촌지역에는 마을방송을 활용해 야외활동이 많은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일 10시, 12시, 14시 3차례에 걸쳐 마을 방송을 실시하며,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에게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안부를 확인해 고령자들의 폭염사고와 예방활동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또, 열대야로 인한 피해를 입는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행안부 특교세를 활용,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경로당) 394개소에 대해 야간에 운영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폭염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폭염대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97



<제96호 퍼즐 정답>

보	리	수				조	련	사
디		다	방		세	공		이
가	수		자	매	간		가	보
드	라	마		거		드	래	그
				황	진	이		
기	생	충		군		명	칭	이
네	모		시	산	제		수	탈
스		실	소		대	사		리
북	극	성				사	생	아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5 산속에 들어가 도(道)를 닦음.
- 06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남.
- 08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 09 두 길이 엇갈린 곳.
- 11 남을 빈정거리 놀림. 또는 그런 말이나 몸짓.
- 12 물개.
- 14 더 이상의 양(量)을 수용할 수 없이 가득 참.
- 15 몸의 일정한 부분에 피가 많이 모임. 눈이 벌겍게 ○○되다.
- 16 입맞춤.
- 17 스승과 제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9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의 나이 차이. 형과 나는 세 살 ○○이다.
- 21 여행할 때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나 시름 따위의 감정.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 22 울이 가늘고 고운 모시.
- 24 가는 대로 만든 목관 악기. 세로로 내려 불고 앞에 다섯 개, 뒤에 한 개의 구멍이 있다.
- 26 옷을 죄다 벗은 알몸뚱이.
- 27 자나 깨나 잊지 못함.

▼ 세로 열쇠

- 01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인 상태.
- 02 최제우가 창건한 동학을 제3대 교주인 손병희가 개칭한 종교. 인내천(人乃天)과 사인여천(事人如天)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 03 가축의 사료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둥근 탑 모양의 구조물.
- 04 아라비아 지방의 설화를 엮은 책으로 천 하루 동안의 이야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아라비안나이트.
- 05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올해는 8월8일.
- 07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사물을 끌어대어 표현하는 일. 여자를 꽃에 ○○하다.
- 10 발을 헛디디어 넘어짐.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감. ○○이 생기다.
- 13 몸 안의 기생충을 없애는 데 쓰는 약.
- 14 일정한 내용을 상징적인 그림과 간단한 글귀로 나타내어 길거리 등에 붙이는 광고 선전물.
- 17 탄알, 포탄, 미사일 따위가 발사되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
- 18 모집에 응하거나 지원함.
- 20 물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여기저기 몹시 나옴과 들어간 모양.
- 21 입고 있는 옷 이외에 여유가 있는 남은 옷. 본래 사용되는 것 이외의 것.
- 22 아이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 동안. 또는 스무하루가 되는 날.
- 23 십 리에 오리를 더한 거리.
- 25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MAGAZINE
GunSan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일상이 되다 습관이 되다 행복이 되다

평소대로 쓸 뿐인데 자동저축 효과
체크카드 결제 자투리 저축
나의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Daily 절약 재테크 저축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 첫거래 가능

- (1) QR코드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개설
- (2)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개설 후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



KDB산업은행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제외) 1인 1계좌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가입기간 1년~3년(연 단위)

납입금액 월 10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상기 이율은 2019.6.25 자 세전 기준이며, 시장금리 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 2019-07-005호(2019.07.01 - 2020.06.29)